

겨울이야기

2016·통권 207호
Education Gyeongnam



교육칼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 변화

특집 I 행복학교 2년의 발자취
- 함께하는 도전, 즐거움, 성장
- 행복학교의 숲, 그 설레는 도전

특집 II 선진형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 함께하는 수학 나들이
- 배움을 즐기는 수학 체험



P O E M

권두시詩



잔설

겨울 산에서 보았다

보릿고개에 만개하던 쭈
쌀가루 한 줌과
누런 밀가루 송송 뿌려놓고
자식들 입 걱정하다가
대충 버무리 쥘

어머니의 사랑
겨울 산에 듬성듬성 남아
향기롭다

대관령 옛길을 돌아 접어든
겨울 스키장
모두가 들떠 미끄러지는데

비껴선 겨울산은 추억에 젖어
어머니의 위대한 쭈버무리
먹음직스럽게
보여준다



성지여자중학교
교감 민창홍

계간 「시의나라」와 「문학청춘」으로 등단
시집 「금강을 꿈꾸며」, 「닭과 코스모스」, 서사시집 「마산성요셉성당」
changhongmin@hanmail.net



Contents

- 003 권두시
잔설 / 성지여자중학교 교감 민창홍
- 008 권두언
안전은 행복을 세우는 주춧돌 /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 012 교육칼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 변화 /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 018 교육 초대석
내가 틀릴 수도 있다 / 아주대학교 교수 감동근
- 024 특집 I 행복학교 2년의 발자취
행복학교의 성과와 과제 /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곽형준
함께하는 도전, 즐거움, 성장 / 제황초등학교 교사 김명숙
행복학교의 숲, 그 설레는 도전 / 해성중학교 교사 임은경
꿀찌, 행복학교로 날아오르다 / 아림고등학교 교사 장소영
- 052 특집 II 선진형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경남수학문화관'으로 새로운 수학교육을 꿈꾸다 /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임채환
함께하는 수학 나들이 / 양산수학체험센터 교사 정인수
배움을 즐기는 수학 체험 / 남산초등학교 교사 서보업
아이들이 채우는 교실, 교사의 희망이 되다 / 대청중학교 교사 문혜령
- 078 생생교육
드론과 함께하는 융합교육 /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경란
마음富者 되는 父子캠프 /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교사 옥정애

087 찾아가는 학교

오늘보다 미래가 행복한 '영마이스터' /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 김성원
행복한 꿈이 자라는 작은 학교 / 청덕초등학교 교장 박재식

100 우수동아리 소개

나무와 햇살 / 김해대곡초등학교 교감 배숙정
아름다운 화음, 'Endless 합창단' / 진해여자중학교 교사 이정현
Y.E.S 제비 탐험대 / 예림초등학교 교사 김정수
나눔으로 비상하라, '동그라미 배움터' / 거제고등학교 학생 김채현

126 교직실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살펴보기 /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안성진

130 여유와 멋

희망 / 금서초등학교 교사 김진완
희망 / 명덕고등학교 교사 김현숙
정(情) 때문에 / 상주초등학교 교사 장현재
이 또한 지나가리 / 밀양고등학교 교장 강동기
뒤에서 첫 번째 수학여행 / 명신고등학교 교장 안명영
현혈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미덕 / 창원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정민전
청렴한 공직 풍토로 가는 길 / 산청교육지원청 주무관 서정천
명선도 일출 / 김해부곡초등학교 수석교사 류철형
인생여정 /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안상수
눈발들 썸 / 공군과학고등학교 교사 양인규

• 표지사진 : 2016. 제4회 거꾸로교실 수업나눔 캠프

경남교육정책

교육
지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정책방향

1.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역점과제

1. 행복 학교 운영
2.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3.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4.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겨울이야기

2016·통권 207호
Education Gyeongnam

Education Gyeongnam

권두언

안전은 행복을 세우는 주춧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교육칼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 변화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교육 초대석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주대학교 교수 감동근



권두언



안전은 행복을 세우는 주춧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여름날 푸르던 은행잎이 가을햇살을 받아 도심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더니, 늦은 가을 길 위를 수채화로 수놓은 후 어느덧 나목(裸木)의 모습으로 겨울잠에 빠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겨울은 못 생명이 봄맞이를 위한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높아가는 목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우이웃을 돕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조심 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화재 발생빈도가 낮고 안전설비도 강화되었다고 하나 고층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번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이끌었던 영화 가운데 다수가 재난영화입니다. '투모로우', '아마겟돈', '2012' 등이 있고, 지구촌 인류에게 잊히지 않는 명작으로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국내 영화중에도 '해운대', '타워' 등 재난 영화가 많은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재난 영화가 흥행을 기록한 것은 한시도 눈길을 땔 수 없게 만드는 긴박한 상황과

권두언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 관객들이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는 흥행이 곧 성공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차라리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재난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백화점 붕괴, 교량 붕괴, 지하철 화재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이어졌고 국민을 충격과 비탄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재난영화는 대부분 자연재해를 배경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한국형 재난사고는 대부분 인재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 부패가 끓아 터진 사건이었고, 하필이면 그 대상이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었으며, 국가의 무능력 속에서 전 국민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해야만 했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입니다. 세월호는 인양할 수 있겠지만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은 쉽게 건지지 못할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2016년을 '학교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재난 유형별로 안전매뉴얼과 스쿨존 안전지도를 만들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통학버스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안전입니다. 선포식과 박람회 개최하고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대면하는 교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안전교육에서 앞서 간다는 평을 받는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들은 학생 수준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지역의 관계기관이 학교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은 업무로 생각하기 이전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노란리본 배지입니다. 어떤 이는 진보교육감의 상징이냐고 묻지만 배지를 매만지는 것은 아이들 안전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나름의 퍼포먼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그 이면에는 부작용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편안함을 누린 만큼 그것이 언젠가는 큰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 세상이지입니다. 작은 편리함보다 큰 위험에 대비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살피고 생각하며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간단해 보이지만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안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안전이라는 주춧돌 위에서 세울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 경남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원합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 변화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우리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할까? 학교생활도 벽찰텐데 학원에는 왜 갈까? 정말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갈까? 퇴근길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학원버스가 발걸음을 무디게 만든다.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진다. 학업성취도가 1등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공부 또 공부에 매달릴까?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부는 끝이 없는 모양이다. 통계에 잡힌 연간 사교육비가 17조원 이상이다. 이렇게 공부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부모는 자녀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만으로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상관없이 자녀가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즉, 인고

의 착각에 빠져있다. 이러한 믿음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학원을 부지런히 다니게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한다.

공부를 못하는 원인을 '노력'에서 찾으면 우리 아이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성적이 낮은 이유를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면 한없이 불행해진다. 과외, 학원 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을 잘못 분석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실패의 원인을 '능력, 노력, 운, 과제의 특성'으로 체계화했다. 만약 실패의 원인을 '능력'에서 찾으면 '능력'은 어느 정도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한다. 혹시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학생의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우려면, 80%이상이 수업이므로 수업이 재미있어야 한다. 수업이 즐거우면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 학습동기, 행복지수는 저절로 높아진다. 수업에 대한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 내용을 억지로 이해시켰다면 학생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수업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학생은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학원 등을 기웃거린다. 인고의 착각에 빠지는 공부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학생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수업시간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수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있다면 수업에 몰입하여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몰입은 학생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모두 다른데 한 가지 능력만 발휘하도록 강요한다면 학생들이 즐거워하겠는가? 가드너의 다중지능(언어, 공간, 음악, 자연친화, 자기성찰, 논리수학, 인간친화, 신체운동)이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2-3가지 남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자연친화지능'이 남다른 아이는 약초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쉽게 구별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몇 번을 들어도 구별할 줄 모른다. 우리는 아이의 남다른 능력을 발견하여 그 재능을 수업 시간에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학생은 수업을 즐길 수 있다. 국어 수업의 자기소개 시간에 '언어지능'이 뛰어나지 않는 학생은 불안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음악지능'이 뛰어난 학생은 노래로, '공간지능'이 뛰어난 학생은 캐리커처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체운동지능'이 뛰어난 학생도 역할극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에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면 왜 수업 시간이 즐겁지 않겠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미래학교는 미래에 살아갈 핵심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배움의 즐거움보다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 많은 학교에서 미래 사회에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었는가? 창의성보다 암기한 지식을 확인하는 형태의 시험을 더 선호하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보면, 글썸하다. 미래학자들은 2025년 즈음에는 사람의 손목 등에 칩(chip)을 넣는 기술까지 상용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지고, 점수 몇 점 차이로 등수를 가리는 일도 무의미해진다. 미래학자인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앞으로의 시험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친구들과 협의하고 실제로 제작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교육 방향도 지금 아이들에게는 옆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는 입시 중심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옆 친구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래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핵심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수업이 학생 활동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혁신학교'와 대학입시의 큰 흐름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10월 26일은 혁신학교인 김해봉명중학교에서 월 1회 개최하는 배움중심수업 나눔의 날이었다. 앞 차시에는 김해 관내 중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모든 교실에서 수업을 개방했고, 오후 3시부터는 강당에서 3학년 역사 수업을 김해 외 지역 선생님에게 개방했는데 200여명의 선생님이 참관했다. 중학교 선생님만 관심을 보이는 줄 알았는데 타시도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도 제법 눈에 띄었다. 그만큼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학생활동 중심 수업, 서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긴장하면서도 표정은 밝고 맑아 보였다. 수업 선생님은 지루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을 모듈별 활동과 발표, 역할극 등으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쉽없이 학생의 성장 정도를 메모하였다.

김해봉명중 모든 선생님은 이와 같은 수업에 익숙하고 배움중심수업 피드백, 교과서 단원 재구성, 단원 성격에 따른 수업 방법, 수업과 연계한 평가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므로 이 학교 학생들은 즐겁지 않을 수 없다.



평가의 힘은 대단하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는 유치원 교육 방향까지도 바꿀 정도로 막강하다. 최근에는 학생부종합전형(교과성적 및 비교과활동을 함께 평가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열정 및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은 현재 고3 학생은 20.3%, 고2 학생은 23.6%이고 서울지역 주요 15개 대학은 40%. 서울대는 약 75%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등 저소득층에 불리한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긍정적 방향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교사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잠재능력이 있는지 등 학생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토론하고 질문하는 등 학생 중심의 교실로 바뀌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인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며 대학에서는 이 기록을 보고 학생의 학업 능력, 잠재능력,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므로,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가는 학교는 이미 학생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어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수업에 몰입하여 즐기고 있다.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업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업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와 연계한 교과서 재구성이 학기 시작 전인 2월에 교과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원의 성격과 핵심성취기준에 의거 수업 방법을 결정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의 도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수업을 거쳐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수업은 평가를 통해서 그 성과를 확인하게 된다. 즉, ‘교육과정·수업·평가’는 상호간에 실행 전략이면서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학교교육은 정당성에 도전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수업·평가’는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재구성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검인정 또는 인정 교과서이므로 핵심성취기준에 의한 교과서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수업, 평가와 연계하면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5단위 교과서를 2단위 또는 8단위로 증감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지식이라도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다.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모둠별로 토론하고 협업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수업, 문제집만 달달 외우는 앵무새 수업은 학생을 피곤하게 만든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풀면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 수업과 평가는 분리되지 않고 수업의 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협동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실생활과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창의인성교육이 이루어져 우리가 바라는 창의융합인재를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을 야만스럽게 붙잡아 놓기만 하고 교육과정을 엉망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학교 모습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다는 인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과 연계한 교육과정·수업·평가(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로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생이 재미있게 신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 변화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 미래 사회에 살아갈 핵심역량을 길러 줄 수 있다.

seung57@korea.kr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주대학교
교수 감동근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직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극단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한 바 있다. 과거에 대한 그의 통찰력에 비해 미래에 대한 그의 견해에는 허술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한 얘기 중 적극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이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확률이 크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배운 교육 내용으로 여생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역사상 첫 세대가 될지 모른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떻게 해야 늘 변화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일 것이다.”

내가 종사하는 전자공학 분야는 알파고 사건 이전부터 이미 2년 뒤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급변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기술은 학생이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는 시점에 이미 구닥다리가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 자체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아주대학교는 각 신문사 평가에서 15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전자공학과는 10위권 정도로 여겨진다. 그런데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와 평균적인 학생들은 혼자서 교과서를 읽지 못한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글로 쓰인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전공서적을 처음 읽으면 그 내용의 3분의 1 정도나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절반쯤 이해되고, 네댓 번 읽으면 비로소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면 그동안 학원과 인터넷 강의에서 이해가 될 때까지 떠먹여주던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원래 수능의 지문들은 플라톤의 <국가>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같이 여느 고등학생이 절대 읽어보지 않았을 곳에서 가져온다. 낯선 텍스트를 접할 때 짧은 시간 내에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지를 평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수능을 대비하는 정공법이지만, 우리의 놀라운 사교육 시스템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냈다.

객관식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일에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 이미 18세기에 볼테르는 “어떤 답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다. 결국 위대한 질문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자꾸 질문을 하도록 격려해

취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눈치를 준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점은 바로 상상력이다. 알파고의 인공지능망은 십만 개 안쪽의 뉴런을 흉내 냈지만, 인간은 대뇌피질에만 약 천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어서 훨씬 큰 틀에서의 학습이 가능하다. 온갖 신기한 인공지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다.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생각해내는 능력에서는 인간이 여전히 인공지능을 압도한다.

상상력(想像力)을 직역하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는 능력이다.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가 최고다. 영화 <마션>은 2015년에 개봉됐지만 원작 소설은 2014년에 출판됐다. 영화로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열 배는 힘들다. 묘사된 문장으로부터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끊임없이 떠올려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상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문제지를 열심히 풀게 해서 소위 명문 대학 들여보내는 것이 그들을 진정 위하는 길일까?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의 법칙은, 중·고등학교 때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부 졸업생들의 과반수가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 때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대입 준비하느라 진을 다 빼서 또 공부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들만큼만 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전자공학과 졸업생의 4분의 1 정도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학교 전체로 보면 대기업 취업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내가 근무하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3-5개 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명문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느 집단에서나 10%는 커녕 4분의 1 안에 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어졌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이 나의 ‘노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학생들도 알아채기 시작했다.

더 암울한 것은 이런 추세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별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다. 문제의 근원이 주기적인 경기의 사이클 때문이 아니고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진 탓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고 프리랜서가 대세가 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서비스나 상품)를 만들어낼지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인 시대가 오고 있다.

알파고의 성취가 시사하는 바는, 바둑과 같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목표와 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라면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직관과 통찰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목표와 규칙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로봇 공학자 한스 모라벡은 “체스 인공지능을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지각이나 운동 능력 면에서 한 살짜리 아기만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둑의 역사는 2,500년을 넘지 않아서 알파고가 단기간에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인간이 2족(직립) 보행하기까지는 수백만 년의 학습(진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족 보행 로봇 개발에도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존 최고의 2족 보행 로봇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2000년에 발표됐던 혼다의 ‘아시모’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아직 인간에 비할 바는 아니다. 올해 초 아틀라스가 눈 덮인 비탈길을 그런대로 잘 (술이 제법 취한 성인 수준으로) 걸어 내려오는 영상이 공개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로봇이 모터를 자율적으로 제어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주요 변수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설정해준 덕분이었다.

결국 가상공간에서 주로 숫자로 된 정보를 처리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하더라도, 물질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인공지능(로봇)이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인간의 능력은 곧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경쟁력이다. 대화와 타협의 기술, 남을 배려하는 마음, 협업하

교육 초대석

는 능력 등은 예전부터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다뤄져왔지만, 이제는 우리 교육이 최우선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목표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와 '카톡'의 단문에 익숙해진 나머지, 긴 글을 쓰거나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려워하지 않던가? 무엇보다,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면서 학생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협업하는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나는 조만간 만 5세가 되는 아이가 있다. 내가 인공지능 전문가 내지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전문가랍시고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실은 내 아이도 어떻게 교육할지 몰라서 늘 고민하고 있다. 이 아이가 갖게 될 직업은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저런 교육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은 없다. 내가 알고 있던 성공 법칙은 이미 깨졌다.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내 아이를, 내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을 권해보지만, 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권유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어. 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을뿐더러, '꼰대' 소리 듣는 것과 같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겸손해질 텐데. 바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알파고와 판후위의 기보를 보고 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직은 인간 최고수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바둑에 대한 지식이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 것이다.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더 많은 융통성과 적응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kam@ajou.ac.kr

겨울이야기

2016 · 통권 207호
Education Gyeongnam

Education Gyeongnam

특집 | 행복학교 2년의 발자취

행복학교의 성과와 과제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곽형준

함께하는 도전, 즐거움, 성장

제황초등학교 교사 김명숙

행복학교의 숲, 그 설레는 도전

해성중학교 교사 임은경

꿀씨, 행복학교로 날아오르다

아림고등학교 교사 장소영





화제초등학교 꽃나루 예술제

행복학교의 성과와 과제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곽형준**

행복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으로써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구현하는 학교 모델이다. 2015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1개의 행복학교(초 13, 중 6, 고 2)가 각기 다양한 행복을 만들고 있다. 행복학교는 교직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학교마다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의 변화,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학교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

먼저, 학교가 학생을 따뜻하게 감싸 주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교장선생님께서 아침 등교시간 교문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학교가 많이 있다. 나아가, 교장선생님께서 아침을 굶고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토스트를 만들어 챙겨주기도 한다. 중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는 참 따뜻한 곳이에요”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모임을 통해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는 학교, 학생 중심으로 학교공간을 바꾸는 학교 등이 생겨나고 있다. 중앙현관에 북카페가 생기고, 학교 주차장과 빈터에 바닥놀이터를 만들며, 학교 건물 안 곳곳에 보드게임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신발장을 1층 출입구에 배치하여 비가 올 때 양말이 젖지 않고 실내화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 아이들의 눈으로 살피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행사(입학식, 축제, 운동회, 수학여행 등)를 기획하고 추진하며, 학생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 속에서 세상과 만나면서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아픔을 느끼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학교 규칙을 학생이 직접 정하고 스스로 지킨다. 학생들이 서로 토론과 공청회도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도 많이 변했다.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젝트학습을 하는 학교가 많아 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곳곳에서 도전 프로젝트,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마을축제 프로젝트 등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아침 식사



중앙현관을 북카페로

세 번째로, 학부모님들이 교육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수업시간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림책 읽어주기부터 그림자극, 수학 협력교사, 벽화그리기, 체험학습 안전 지도, 계절학교 지도교사 등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직원들이 학교를 위해 즐겁게 협력하고 있다.

특히 회의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전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교육과정과 학교 주요 활동들을 결정한다. 하지만 소통의 어려움을 실감할 때도 많다.

수업의 변화를 위한 선생님들 간의 협력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서로 간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서서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교사로서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행복학교는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



초·중학교 연합 교사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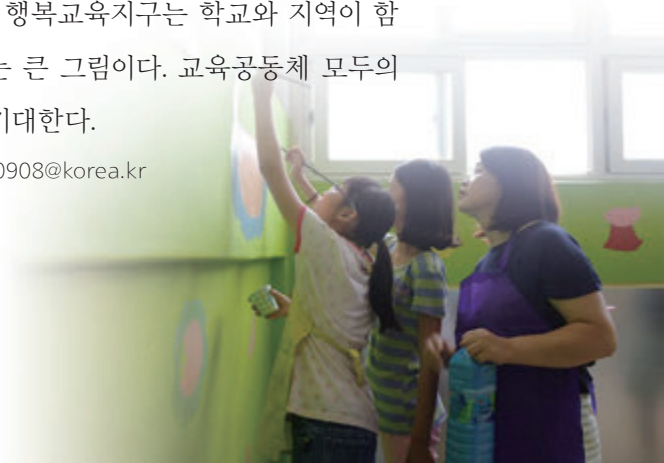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기부

지고 있다. 바로 행복교육지구 계획이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2017년부터 행복교육지구를 1곳 운영하는데, 지난 10월 20일 경남교육청과 김해시가 업무협약식을 통해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닻을 올렸다.

김해 내외동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교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민을 마을교사로 양성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진로 직업체험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다. 행복학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는 큰 그림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채워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khj0908@korea.kr





함께하는 도전, 즐거움, 성장

수업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사

제황초의 수업나눔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똑똑한 '내'가 모여 따뜻한 '우리'가 되자.



제황초등학교
교사 김명숙

1.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행복학교에서는 4대 추진 과제 중 세 번째 과제로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¹⁾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 조직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습조직화하여 배움의 공간으로 학교문화를 만들고, 공동연구와 실천을 통해 성장한 교사들이 질 높은 수업을 구현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2. 다양한 수업 교류 활동으로 수업 동료성 회복하기

가. '독서토론' 으로 마음 모으기

독서토론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같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다. 개인의 독서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보다 깊은 사유와 공유의 자리가 된다. 그리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며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상호 보완해 나가기도 한다.

업무 중심으로 쫓기던 일상 속에서 교육에 대한 독서토론은 교사들이 다시 수업을 고민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 '수업친구'와 함께 수업수다로 시작하기

'수업친구'란 일상의 수업과 아이들 이야기를 수다처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동료를 말한다. 친구에게는 성공한 수업이 아닌 실패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편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를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도 한다. 전담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서로의 교실을 방문하며 수업장면을 관찰할 수도 있다.

다. '교실 나들이'로 수업 동료성 회복하기

교실이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기는 하나 내 교실을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

1) 학교조직의 교육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말한다(2015.행복학교 정책이해자료).

이다. 특히 수업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서로의 교실을 드나들 수는 없을까?

‘교실 나들이’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가듯 다른 반을 방문하는 것이다. 다과도 준비하고 대화 소재도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반에서는 미술 실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반에서는 교실 놀이 활동을 하기도 한다. 교실환경을 둘러보며 교실 주인에게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학습게시물이나 아이들의 작품, 공책을 소재로 하여 수업과 아이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

교실 나들이는 교실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이후 일상의 수업공개를 원활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3. 일상수업공개와 협의회를 세트화하기

지금까지는 수업 공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했으나 이제는 그 힘을 수업 사후협의회로 이동시켜야 한다. 공개수업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수업을 성찰할 수 있는 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 수업협의회를 평가나 등급, 개인적인 수업컨설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관 교사들의 공동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가. 공개수업 계획안 간소화하기

일상의 수업을 나누기 위한 계획안에는 수업 관찰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간소화한다. 교사의 가르침 계획으로 가득 채워진 수업계획안에 아이들이 배움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교사는 준비한 대로 진행하느라 아이들이 하는 중요한 말이나 눈빛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수업 계획안에 아이들의 채울 여백을 남겨 둬으로써 교사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 배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업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수업 공개 문화의 변화



공개수업안이 간소화되면 참관 교사들이 수업계획안에만 집중했던 눈을 수업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에게로 돌릴 수 있다. 이는 수업을 목표 중심이 아닌 과정으로 살피고, 세부 활동이 아닌 전체의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나. 일상의 수업 공개하기

공개수업이라 하면 화려한 자료, 특별히 준비된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준비한 수업자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협의회는 칭찬일색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벤트수업 한번보다는 매일의 수업을 의미있게 하고 싶어 한다. 일상의 수업을 공개하여 아이들의 배움을 관찰하고 수업자의 고민과 참가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나누는 수업 협의회를 해야 그 속에서 진정한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다.

다. 성찰과 토의가 있는 ‘수업비담협의회’²⁾ 하기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수업협의회 방식을 종합하여 ‘수업비담협의회’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수업비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 : 수업자 및 수업 주제 간단히 소개 (5분)


 사회자가 수업자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수업자는 수업주제, 수업의 의도, 수업흐름, 아이들의 특성 등 수업의 맥락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2) 「수업고민 비우고 담다」의 뜻으로 2015.경남현장정책연구보고서에 제안되어 아이함께연구회 등에서 실천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협의회 방법이다. 수업자의 부담을 덜고 참관자들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어 수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나아가 자기수업성찰로 이어지는 협의회 과정이다.


2단계 : 수업보기 (40분)

 실제 수업 동영상을 본다. 참관자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수업을 보되, 가급적 판단은 보류하고 수업 속에 나타난 사실에 집중하여 기록하며 본다. 그 과정을 통해 현재 자신이 수업을 보는 관점, 수업에 대한 고민 지점을 만나게 될 것이다.


3단계 : 수업과 수업자의 장점 나누기 (5분)

 수업보기가 끝나면 참여자 모두가 수업과 수업자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간략히 말한다. 이는 본격적인 수업협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자와 참관자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음을 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4단계 : 수업에서 관찰한 사실 나누기 (20분)

 2단계에서 기록한 사실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함께 이야기한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관찰한 사실을 모아보면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볼 수 있다. 각자의 관점에서 관찰한 사실을 나누고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가며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업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이야기를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다.

5단계 : 토의 주제 찾아 함께 말하기 (40분)

 본 수업에서 의미 있는 공동의 토의 주제를 만들고 다양한 해결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단계이다. 참가자들이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을 내놓으며 각자의 실천적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사회자는 전체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협의회 of 흐름에 따라 연결 짓는 말을 하며 참가자가 모두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때, 토의주제는 '누가', '왜', '무엇', '어떻게'의 4가지 차원³⁾으로 구분하여 판서하고 기록한다.


3) 4가지 관점으로 수업보기에 대한 이해는 김현섭의 '수업을 바꾸다'를 참조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을 볼 때 교수행위 중심으로 ‘어떻게(수업방법, 기술)’를 먼저 보게 된다. ‘어떻게(수업방법, 기술)’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무엇’, ‘왜’, ‘누가’로 보는 눈을 점차 넓혀 나가게 될 것이다.

○월 ○일 ○요일 수업비담협의회 ☆학년 과목명: 수업자: 사회자 :			
누가	왜	무엇	어떻게
교사와 학생 이해, 교사·학생 관계 등	교육철학, 추구하는 수업방향 등	교육과정, 학습목표, 교사의 의도와 기대 등	교수학습방법, 수업기술, 구조 등
예) 집중하지 않는 아이를 언제까지 기다려 주어야 할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예) 교육과정의 성취수준은 무엇이고, 우리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를 조절할까?	예) 배움을 촉진하는 모둠구성방법과 사례는 무엇인가?

수업비담협의회는 수업을 평가하거나 수업자에게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동료의 수업을 통해 수업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6단계 : 수업 나눔을 통해 내가 배운 것 나누기 (10분)

 오늘 수업협의 과정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번 수업협의회를 통해 배운 점, 새롭게 깨달은 점을 중심으로 말하고 필요한 경우 수업자는 참관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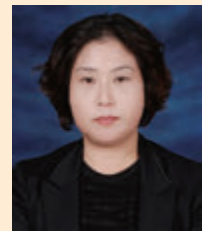
4.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위하여

교사의 성장은 수업에서 의미있는 경험과 실천사례를 동료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실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수업 내의 관계성이 수업 밖의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듯이 수업나눔 또한 동료교사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이 수평적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제항초의 수업나눔은 이렇게 마친다.

함께 하는 도전, 즐거움, 성장!



행복학교의 숲, 그 설레는 도전



해성중학교
교사 임은경

1. '편안하고 행복한 숲' 뿌리를 내리며

학교를 내 집처럼 여기라는 '이교위가(以校爲家)'는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을 저미는 말이다. 학교가 내 집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반면 학생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이 되어 버린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교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자책으로, 혹은 교사가 그렇게 걸어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심한 원망으로 우울해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짝튼 행복학교의 씨앗은 지금 ‘내 집 같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소리 없는 아우성’ 중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평등교육철학과 사람이 우선인 인본주의 교육철학, 권위적이지 않고 헌신적이며 경청하는 교장,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고민하는 교사,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들, 친자연적이며 온화한 학교 공간. 이러한 것들이 비단 부러움으로 바라보던 북유럽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이 씨앗이 사랑의 나무로, 배려와 존중의 나무로 뿌리 내려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알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낼 힘을 가진 숲이 되는 그 날을 꿈꾸며 땀방울을 닦아 내린다.

2. ‘사랑 한 줄기, 배움 한 줌’으로 자라는 행복나무

가. 해성중학교는

면소재지에서도 2km떨어진 곳에 소재한 우리 학교는 경제적·정서적 돌봄이 필요하고 학습에 의욕을 잃은 다수의 학생과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열정과 신념만은 잃지 않은 채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10명의 교사가 고군분투하는 학교였다.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우리에게 구름 속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행복학교’였다.

나. 우리의 행복학교는

“그냥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수업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애는 이런 수업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평가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행복학교 원년에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참 많았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수하고 교육

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잘 하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 때문에 손해 본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멘소리들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난관이라면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속을 학교 비전과 교육철학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힘으로 응대하고 지탱하며 지나왔다. 좀처럼 바꾸기 힘든 교육계의 바탕을 완전히 낫선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사들의 고민과 피로도 무시 못할 고통이었지만, 나아갈 길이 확실하다는 믿음 앞에서 그러한 힘들이 우리를 게으름 속에 그냥 두지는 못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길만이 갈 길이라는 확신이 짙어지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걸어가고 있다.

다. 행복학교의 행복나무들

1)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공동체

학교장의 무게 중심은 행복학교 순항에 큰 영향을 준다.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두고, 관습과 권위를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교장의 마인드는 교사협의회, 학생자치회와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

행복을 가꾸는 모두의 이야기

교직원협의회, 학급다모임, 학생대의원회, 학부모지원단 '해성아이사랑회'의 정기적 오프라인 모임과 더불어 구성원별 밴드가 구성되었다. 교육공동체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피드백이 상시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장과의 다모임을 통해 학교활동이나 학생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다. 또, 소통과 존중을 위한 '열린 교장실'의 활성화로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데 위축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 사람의 생각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민주적 학교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행복학교를 시작하면서 학생자치회의 활동이 빛을 발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인 지지만 하려고 했던 교사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들의 생각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획들이 행사에 적용되었고 그 반응은 뜨거웠다.



해성사랑자치회 나만의 우산만들기 day

‘친구사랑 주간행사’, ‘학교폭력멈춰 캠페인’, ‘스승의 날’, ‘체육대회’, ‘이런day 이벤트’, ‘해성행복축제’가 학생들의 손에 의해 일구어졌고, 학급회와 대의원회를 거치면서 정제된 프로그램들은 그야말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알찬 행사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행사를 마친 후 학생모니터단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거치며 날로 성숙해지는 학생자치회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이 많아 힘들긴 하지만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학생들은 새로운 행복을 맛보고 있다.

2)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되는 교육과정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체제를 위해 업무전담팀과 학급담임팀으로 나누어 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는 것 같지만 정작 진정한 목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교과서 속에서만 길을 찾으려 했던 지난 날의 교육과정에 혁신을 꾀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서도 정작 사회 속에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거리는 아이들, 정의가 무엇인지 배려와 존중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아이



열린 교장실

들로 세상에 내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심어줄 수 있을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사들은 수없이 머리를 맞대었고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방향성에 대한 확신으로 짙어지는 사명감을 절감하며 작은 걸음을 옮기고 있다.

학교 철학과 학생들의 삶을 담은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의 비전과 교육철학에 따라 학년별 핵심 가치를 정한 후, 이를 다양한 교육활동 속에 녹여냈다.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융합프로젝트, 주제통합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학교 철학과 핵심성취기준을 담은 교육 실천에 박차를 가한다.

배움이 행복한 수업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바탕으로 토의·토론, 하브루타, 발표,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삶을 영위할 힘을 기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와 질 높은



삶을 재단하는 목공 수업

배움이 일어나고 배움의 결과를 표현하는 데에도 거리낌 없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한다.

배움, 성장 그리고 평가

미래역량 배양을 위한 가치형, 축적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업 중의 활동과 배움이 바로 평가로 연결되는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는 단답형, 선택형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서술·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로 실시된다. 평가 후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한 명 한 명이 만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은 뭉뚱그려 모두에게 일방적이었던 이전의 피드백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을 지향하고 지원하면서 학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부족했던 배움을 흡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 나간다.

3) 교사 행복의 뿌리와 꽃 - 수업공개 및 교사연구회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공감했지만 수업성찰과 수업공유, 배움중심수업의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곧 반성적 사고를 시작



학급발표회

하고, 교사들 모두의 인식전환으로 수업을 위해 함께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에 뜻을 같이 하였다.

닫힌 교실에서 펼쳐지던 교사 1인의 세계도 실속 있고 알차지만, 집단 지성이 모여 일구어 내는 가르침의 세계는 경계를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향해 펼쳐질 수 있다는 경험이 교사들에게 환희를 안겨 주었다. 교실을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제안수업 공동디자인을 통해 듣는 동료교사의 조언으로 사라지고, 계속되는 수업공개와 수업디자인을 위한 인고의 시간들은 질 높은 수업을 향한 교사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해졌다. 주2회 수업공개와 주2회 교사연구회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보다 나은 수업을 향한 교사들의 행복한 합창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4) 소통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학교

부모가 가난하면 학교에서 뒤쳐지고 부모를 잘 만나면 사교육을 받아 좋은 상급학교에 가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할 우리 교육의 치부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혼자서만 잘 하고 혼자만 똑똑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남의 아이도 결국 내 아이와 함께 삶을 꾸려나갈 협력자고 동반자다.

교사와 학부모가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학부모에게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의 인식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학부모와 지역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교육의 무한한 잠재력을 펼치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가 처한 지역적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단위 학교에서 의지만으로 이루어내기에는 너무 큰 벽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결국은 지역과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척박한 현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교육지구' 기반 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고 시스템으로 구축되기를 바래본다.

명실상부 학교, 학부모, 지역이 미래교육의 비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일구는 것이 행복학교의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될 것 같다.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교정

아침의 해성교정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흐른다. 교장선생님은 등굣길에서 따뜻한 포옹으로 새 아침의 출발을 맞이하며 간밤에 아픈 아이는 없는지 힘든 표정의 아이는 없는지 살핀다. 교실에 들어서면 담임의 포옹과 함께 학급별 특색 활동이 시작된다. 대형퍼즐 맞추기, 장기 두기, 보드게임, 시낭송, 체조하기, 티타임 등 담임의 운영 계획에 따른 학급 활동이 아이들의 아침을 활기차게 만든다.

학생이 만드는 행복한 축제

해성어울림교육과정의 결실을 갈무리하는 학급발표회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열렸다. 한 학기 동안 갖고 닦은 예술적 소양 발표, 학습결과물 전시, 장기자랑으로 구성된 소박한 학급발표회에서 아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여 모두의 박수를 받았고, 2학기 발표회는 스쿨스тей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학부모님들이 준비해 온 간식을 즐기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해성행복축제는 처음으로 학생자치회의 손으로 기획되고 진행되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학생의 축제가 되었다. 프로젝트 학습주관을 통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반별로 걸개그림을 만들어 공연무대를 꾸미고, 기획팀, 재정팀, 디자인팀, 공연팀, 먹거리팀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후 사전사후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였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축제의 날은 전교생의 기억에 깊이 새겨질 멋진 하루가 되었다.

학부모지원단 '해성아이사랑회'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배우고 자라도록 하자는 학부모의 뜻이

모여 학부모지원단 ‘해성아이사랑회’가 결성되었다. 면 단위의 시골 지역이다 조손가정의 학생이 많고, 홍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렵사리 걸음을 떼었지만, 조건과 환경만 탓하느라 지금껏 보냈던 허송세월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부모들의 관심과 열의가 모여 시간이 지날수록 활기를 더해갔다. 월별 회의를 통한 교육활동 모니터링과 제안, 학교행사 지원, 재능기부, 상담 지원, 학부모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활동으로 행복교육에 다가가는 길이 한층 가까워졌다.

3. ‘더불어 숲’을 향하여

나무는 처음부터 거목이 아니었고, 숲은 처음부터 숲이 아니었다.

나무와 숲이 지나온 세월 속을 다녀간 비바람과 가뭄과 흑한은 얼마나 많았으랴! 그 시간들이 남긴 고통과 생채기를 알기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나무와 숲을 바라보며 그 웅장함과 위대함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북유럽교육에 부러움의 시선과 무한한 동경을 보내는 우리들이지만, 행복학교의 시작과 함께 이미 우리도 그들처럼의 나무와 숲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유럽의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그만큼의 복지와 선진문화가 이루어졌듯, 경제적으로 의식적으로 많이 부족한 우리의 기반 위에선들 못 이룰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도 숲한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내어 거목과 숲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행복한 고통을 즐겨볼 일이다. 나는 진정 이것을 행복한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너무나 오랜 시간 나를 지배하고 있던 해묵은 습관들을 흔드는 낯선 바람들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고통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와 행복으로 느껴짐을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등갯길에 달려와 선생님에게 안기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웃음꽃. 수업시간 모둠활동에서 친구에게 묻고 이야기 나누며 ‘아~’라고 내뱉는 감탄사들, 프로젝트 수업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주말 봉사활동 계획을 잡는 대견한 아이들을 보는 교사들의 벅차오르는 희열..... 이 모든 것을 단지 행복이라는 단어로 형언하기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이 행복이 민들레 홀씨처럼 해성의 숲에서 번져나가 모두에게 더불어 행복한 숲이 되는 그날이 얼른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jubdong@hanmail.net



꿀씨, 행복학교로 날아오르다



아림고등학교
교사 장소영

1. 꿀씨, 행복학교에 도전하다

아림고등학교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거창군에 있다. 거창농업고등학교 시절에는 지역의 명문고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사들이 졸업한 학교였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안 좋은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아림고에 진학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린 초등학생조차 다니기 부끄러운 학교로 생각하기도 한다. 지역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아림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자존감이 매우 낮고 의욕이 떨어지며 공부로 인한 심한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아립고에 작년부터 변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수업시간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교사들이 이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를 통해 학교를 바꾸어 보자는 움직임이 몇몇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토론 끝에 결국 행복학교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우리 학교의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짚어 보았고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학교'에 도전하게 되었다.

2. 학생들의 기를 살려라

가. 교내흡연 크게 줄다

아립고에 가면 교실에서도 담배 냄새가 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교내 곳곳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 모두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곳곳에 붙은 금연 문구, 화장실을 폐쇄하겠다는 으름장 등 갖가지 강력한 지도의 효과는 그 때 뿐이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올해 3월이 되면서 학교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진 것이다. 매일같이 학교를 돌며 구석구석 담배꽂이를 줬던 교감선생님도 학교의 변화에 놀라워 하셨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되짚어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학생

자치'의 힘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 학교는 다른 행복학교와는 달리 첫 해의 과제로 수업과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자치 활성화'와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만들기'를 선택했다. 행복학교를 준비하는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는 학교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가장 큰 문제로 뽑은 것이 바로 '교내 흡연'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교내 곳곳에 게시하였고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자기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주의 깊게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2월에 새 학년을 준비하면서 새로 선출된 학생회 대표들을 만나 학교의 변화에 대해 의논하던 자리에서 학생회 회장단과 선도부장은 스스로 담배를 끊고 모범을 보이며 교내흡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나. 자존감이 살아난 학생들

사실 교사들 중에 자치를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운 좋게도 지역에서 청소년 사업을 주로 하는 전효민 사회복지사님과 연이 닿았고, 덕분에 학생자치를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전효민 사회복지사님과 학교의 지원을 받게 된 학생회 회장단은 스스로 학생회 임원 워크숍 준비 T/F 팀을 구성하였다. 임원들은 워크숍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1박 2일 워크숍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짚어보고 학생회의 비전과 각 부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렇게 준비된 임원들은 학생회 회의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갔다.

5월에 열렸던 교내 체육대회는 어느 해와는 달리 학생회 체육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작년에는 체육대회인데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교실 곳곳에 숨어있는 녀석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빠졌었는지 모른다. 응원을 주도하던 학급 대표들도 따라주지 않는 친구들을 원망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올해 체육대회 날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학생들이 개발한 기발한 경기가 진행되기도 하고 선수부터 심판까지 모두 학생들이 도맡았다. 간호동아리는 부상자들을 돌보고 뷰티동아리는 페이스페인팅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누구 하나 교실에 숨어있지 않고 자신들의 축제를 즐겼다.

학창 시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그러나 우리 학교의 동아리는 허울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만든 동아리, 가위바위보에 저서 모인 동아리 회원들, 그러다 보니 동아리 활동도 귀찮아하는 학생들은 걸핏하면 자습이나 하며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리를 구성하는 과정부터 학생들의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동아리 구성위원을 모집하고 학급회를 열어 어떤 동아리 모임을 해보고 싶은지 의견들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의견들을 구성위원들이 스스로 정리하여 동아리를 개설하였다. 아무 의욕도 없어 보이던 학생들이었는데 동아리 구성위원이 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스스로 동아리를 개설하는 경험을 하며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눈빛이 빛났다.

개설된 동아리마다 준비위원을 하겠다며 신청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동아리 홍보 선전물이 학교 곳곳에 붙었다. 준비위원들이 각 교실을 돌며 자기 동아리에 대해 알리던 동아리 순회 홍보의 날, 준비위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는 좀 못 해도 운동은 정말 잘 하는 학생들. 체육대회 날이면 운동장을 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에 얼마나 반했었는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다른 학교와 겨루기만 하면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올해 봄에 열렸던 지역의 학교 스포츠클럽 예선 대회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선수를 뽑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응원단까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다른 학교와 겨루는 경기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

다. 학교의 주인이 되어가는 학생들

학생들은 점점 학교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2학기에는 학년별 자치 활동이 눈에 두드러졌는데, 1학년의 행복 야영, 2학년의 수학여행은 그 결실의 장이었다. 1학년 학급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학년 자치 회의에서는 학급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스로 야영의 목표와 프로그램을 짰다. 수련원에 안 가고 학교 야영이나 한다고 툭툭거리던 목소리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즐거운 활동 만들기에 녹아들어 사라졌다. 2학년 수학여행 기획단 역시 학급의 의견을 모으고 사전 조사를 통해 수학여행 코스를 만들어 갔다. 학생들은 스스로 모듬을 만들고 각 코스에서의 활동을 계획하였다. 수학여행 기간 동안 버스나 숙소에서도 스스로 맡은 역할들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해내던지! 수학여행 평가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좋았다.”라는 말이었다.

학년 초만 해도 “또 회의해요?”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학생회 선거, 학교 축제를 앞두고, “우리 학급회의 해요.”라고 한다. 스스로 의견을 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다.

올 가을에 1·2학년이 함께 했던 지리산 산행에서도 학생들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을 오르는 내내 힘들어 하는 나에게 힘내라며 격려해 주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형탁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천왕봉에 못 올랐을 거예요.”라며 밝게 웃는 혜진이었다. 실은 둘이 학급회의에서 크게 싸워 울고불고 하던 일이 얼마 전이었는데 말이다. 물론 정상까지 오르지 못한 학생들이 반이 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법제사까지 등반을 했다. 몇 년 째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 중 한 분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학교에는 교과 외에도 다양한 방과후 수업이 있다. 그 중 ‘사람책 도서관 기획단’은 전효민 사회복지사님이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으로 사람을 책으로 모셔 살아온 얘기를 듣는 사람도서관 행사를 기획하는 활동이다. 1학기에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님, 지역의 청소년지도사인 학교 선배, 모두 네 분을 사람책으로 모시고 사람도서관 행사를 진행했다. 물론 어떤 분을 사람책으로 모실 것인가부터 섭외는 물론 참가자 신청과 준비 과정, 진행까지 모두 학생들이 도맡아서 한 것이다. 스스로 행사를 치러 본 학생들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2학기에는 행사를 지역으로 확대했다. 한의사, 변호사, 환경운동가, 청소년지도사, 공무원, 교사, 카페창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지역 어른들을 섭외하고, 청소년복지관을 대관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를 모으기 위해 다른 학교를 방문하고 홍보하는 등 교사인 나도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학생들 스스로 해냈다. 행사 말미에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소감도 반가웠지만 다른 학교의 참가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열어주어 고맙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였다. 그 순간 기획단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람도서관 행사를 참관하면서, 행사를 마친 후 부듯함과 열기로 가득 찬 표정의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의 성장의 끝은 어디인가 싶어 얼마나 벅찼는지 모른다.

3. 불협음과 협음의 어우러짐

물론 학교의 변화가 늘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만은 아니다. 학생들은 놀라울 만큼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또 답답할 만큼 더디게 변하기도 한다. 학교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사고를 쳐서 교사들을 실망시키고, 결의에 찻던 학생회 임원들도 어느 순간엔 다시 예전처럼 귀찮아하며 아무 것도 안 하려든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을 다시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묻고, 의논하고, 제안하고, 기다리기를 반복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먼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른다.

교무행정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행복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학교란 것이 몇 사람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년 담임 회의, 학년 확대 회의, 교육 활동 모임, 교직원 다모임까지 잦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존 듀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 민주주의란 삶의 방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회의에서 모두가 만족한 결론에 이르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며, 함께 논의한 결과도 실행 과정에서는 온도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2월의 새학년맞이 워크숍에서 학교의 비전을 함께 세우고 교육과정에 대해 의논했지만, 저마다 교육관과 학생관이 다른 교사들이니 같은 문제를 해석하는 일부터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름이 어우러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불협음이 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불협음과 협음의 어우러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학교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며 함께 교육해 본 적이 있었는가? 그저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고 내 방식대로 수업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행복학교를 하면서 학교는 공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만의 교육관으로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육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사와 교사,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하나의 비전 아래 다양한 어우러짐을 만들어 갈 때 학교는 진정한 '배움'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4. 학생자치를 딛고 공동체의 배움으로

배움 중심 수업! 요즘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단어지 싶다.

교사들은 밥 먹는 것보다 수업을 더 자주한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이 수업시간이다. 그런데 앞서 얘기 했듯이 우리 학교는 공부의 상처가 깊은 학생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일이 잦다. 나도 작년에 우리 학교로 옮겨와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학생들은 전혀 배우려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전히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학생들도 많고 배우려고 해도 기초가 너무 부족하여 힘들어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학년 국어 수업 공개 때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던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다. 어떤 새말을 사전에 등록할 것인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다. 나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수업 시간에 힘들 때도 있지만 작년을 떠올려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른다. 활동지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를 찾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에게 묻는다. 문제를 풀면서 모둠 안에서는 물론 다른 모둠의 친구에게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며 대화를 나눈다. 발표 할 때에도 아직 서투른 듯해도 이제 발표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학년 공개 수업부터 대외 공개 수업까지, 공개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 하는 경험을 쌓은 학생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어떤 학생들은 입학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놀라울 만큼 학력도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혹은 함께 공부하는 힘도 길러졌다.

이제 학생들에게 배움의 의지를 갖게 돕고 수업 시간에 배우고 싶은 활동을 디자인 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교사들의 역할이 남은 것 같다. 교사들도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디자인하기 위해 힘들게 배우고 있다.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을 참관한 후 수업에서 관찰한 사실을 토대로 각자 배운 점을 나누며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수업 개선도 혼자에게 던져진 과제로 남겨두지 않고 교사들이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학교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학교에 첫 발령을 받은 2년차 영어 선생님의 수업 공개가 있었다. 학년 확대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모여 수업 디자인에 대한 사전 협의회를 하였고, 수업 참관 후에는 2학년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모여 협의회를 하였다. 수업에서

관찰한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각자 배운 점을 나누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배움의 어려움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수업자였던 신규 선생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행복하다고 했고, 이미 훌륭한 수업을 디자인해낸 신규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나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5. 만들어 가는 행복학교

‘행복은 삶의 목표일 수 없다. 행복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부산물이다(레이몬드 앱, Raymond Epp).’

최근에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에서 읽고 무릎을 탁 친 글이다. 행복학교의 교사인 나는 행복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실 그 때마다 바로 대답이 나오진 않는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받고 싶어 징징대기 일쑤이다. 그러던 차에 윗글을 접하고 나는 위로받고 지지받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학교에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 도전을 시작했고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학생들의 드라마틱한 변화부터 나 자신의 뼈아픈 변화까지 겪어 왔다. 벅찬 순간들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의 학교 구조로 되돌아가고 싶진 않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을 좀 더 갖게 되기를, 다른 사람들과 좀 더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스스로의 미래를 기대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내기를,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교사들이 함께 배우는 연수원 같은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행복학교 만들기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부산물처럼 주어지는 행복을 잠깐씩 즐기고 있다.

nonot@hanmail.net

겨울이야기

2016·통권 207호
Education Gyeongnam

Education Gyeongnam

특집 II 선진형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경남수학문화관'으로 새로운 수학교육을 꿈꾸다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임채환

함께하는 수학 나들이

양산수학체험센터 교사 정인수

배움을 즐기는 수학 체험

남산초등학교 교사 서보업

아이들이 채우는 교실, 교사의 희망이 되다

대청중학교 교사 문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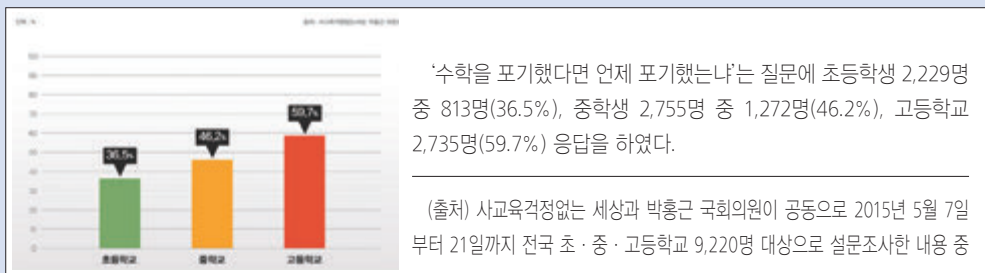


‘경남수학문화관’으로 새로운 수학교육을 꿈꾸다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임채환

수학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이다. 부담을 넘어 싫어하거나 혐오한다는 말이 더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2015년 수학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에서 이러한 현실이 증명되기도 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접한 모든 교육주체들은 그동안 심증으로 여겼던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 정도를 실제 정량화된 도표를 통해 확인하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수학교육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발표한 수학교육 선진화 종합대책은 수학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최초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이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담고 하위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수학교육 선진화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2012년 8월 경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수학기반의 핵심역량 함양,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 인식 확산, 선진 수학교육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수학교육 선진화 특교 사업 외 자체 예산으로 수학 교사 연구회, 선진형 수학교실,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을 구축·운영하여 수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경남교육청이 시도한 이러한 수학교육 정책들은 양산수학체험축전, 경남중등수학체험축전 등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수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4. 경남과학·수학교육페스티벌에 수학체험 영역을 포함시켜 수학교육으로 통하고 과학으로 감을 잡도록 하여 수학과 과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문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집 II | 선진형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특히 2013년 양산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기반 '양산체험수학축전'은 수학만으로도 탐구·체험이 가능한 축전을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2014년 양산체험수학축전, 경남중등수학축전, 경남과학·수학영재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으로 대한민국 최초 공교육기관 '양산수학체험센터'를 만드는 훌륭한 주춧돌이 되었다.

2015년 양산수학체험센터의 설립은 전국 최초의 공교육기관으로 경남교육청의 큰 자량이 되었다. 이는 수학교육 선진화 정책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입안하고 노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양산수학체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경남교육청이 나아갈 수학교육의 방향과 '경남수학문화관'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양산수학체험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경남 소재의 모든 학교에서 간단한 신청으로 가능한 새로운 대안 선진수학 프로그램인 탐구·과정 중심의 '체험형 수학 수업'과 각종 수학교구의 체험을 통해 수학을 탐구할 수 있는 '체험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겨울방학 학생체험수학캠프, 수학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선진 수학교육을 위한 학부모 대중화 강연회 등을 개최·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진행된 '학부모·교육감과 함께 하는 수학Talk콘서트'는 큰 반향을 일으켜 수많은 학부모에게 수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경남교육청이 선진형 탐구·과정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한국의 수학교육 전체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6년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 사업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한국수학문화 확산의 메카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주체들과 의견을 나누며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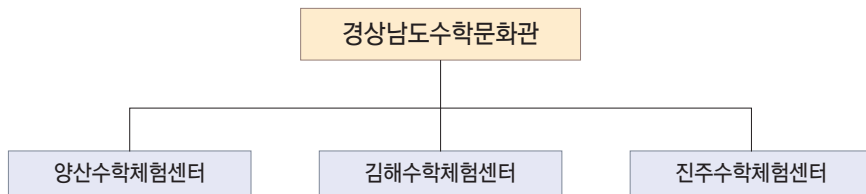
수학문화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관람과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으로, 수학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을 즐겁고 유익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여가 활용을 통해 삶에 유익하고 유용한 미래지향적 선진 수학과 수학교육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장이다.

수학문화관은 궁극적으로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수학문화 소통을 위한 장소이다. 이를 위하여 수학의 개념 및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 및 수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인류에 의해 생성된 수학 및 수학문화를 수집·보존·해석·조사 연구함과 동시에 일반대중이 수학 및 수학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 강의, 체험을 통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¹⁾

일반인에게는 수학문화관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수학이 기반이 되는 제 4차 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설치되어야 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 건립 예정인 수학문화관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통해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은 경남이 가지는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수학문화관 모델을 제시해야 했다. 경남은 산업도시와 농산어촌 복합도시로 지역 간 수학적차 해소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시·군에 파급할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다음에 제시되는 그림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경남과 같은 환경을 가진 시도 교육청에 훌륭한 모델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전통문화수학과 산업수학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수학문화관과 지역 수학체험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학문화관** : 탐구·체험중심 수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선도 및 수학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허브 기관
- **지역수학체험센터** : 수학문화관 부서의 역할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수학교사 연구회, 권역별 지역 학생 체험수학 교육, 방학 체험수학 캠프 운영, 교사 연수 및 학부모 대중화 강연회 등 운영

경남수학문화관은 경남교육청의 새로운 수학교육의 방법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암기 중심의 주입식 교육은 막을 내리고 학생중심의 배움이 행복한 탐구·과정 중심의 교실 수업이 정착될 것이다.

1) 이용훈, 2016년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 내용 중

특집 II | 선진형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경남교육청은 수학문화관의 설립으로 일선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탐구·과정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손쉽게 수학적 교구를 만들 수 있는 도안, 게임 등을 최대한 빨리 제작하여 보급할 것이며, 탐구·과정 중심의 수학교육 방법을 일선 교실에 확대하기 위해 체험수학 교사연수의 폭을 확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중화 강연회를 통해 선진형 수학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자녀의 수학학습방법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도민 누구나 새로운 선진 수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남수학문화관을 개방할 것이다.

경남교육청이 이와 같은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선진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의 지혜를 모아 모든 교육공동체들로부터 사랑받는 경남 수학문화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kbs0392@korea.kr

선진국 수학문화관 사례



■ 독일 기센의 수학 박물관 「Mathematicum:마테마티쿰」

- 개관시기 : 2002년
- 위치 : 독일, 기센(기센역에서 도보 5분)
- 체험수학 전시회(초기) → 수학 순회 체험전 (확산) → 후원자 모집(건립) → 기센시청에 건물 제공
- 독일정부, 유럽 연합의 지원으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 미국 뉴욕의 수학 박물관 「Momath : 모메쓰」

- 개관시기 : 2012년
- 위치 : 뉴욕 맨하탄 메디슨 과학 인근
- 2009년 뉴욕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4년 동안 2천 2백만 달러를 모금하여 건립



■ 이탈리아 수학박물관 「아르키메데스 정원」

- 개관시기 : 1999년
- 위치 : 이탈리아 피렌체 외곽
- 체험수학 전시회(초기) → 수학 순회 체험전 (확산) → 후원자 모집(건립) : 시청, 대학, 학회의 도움으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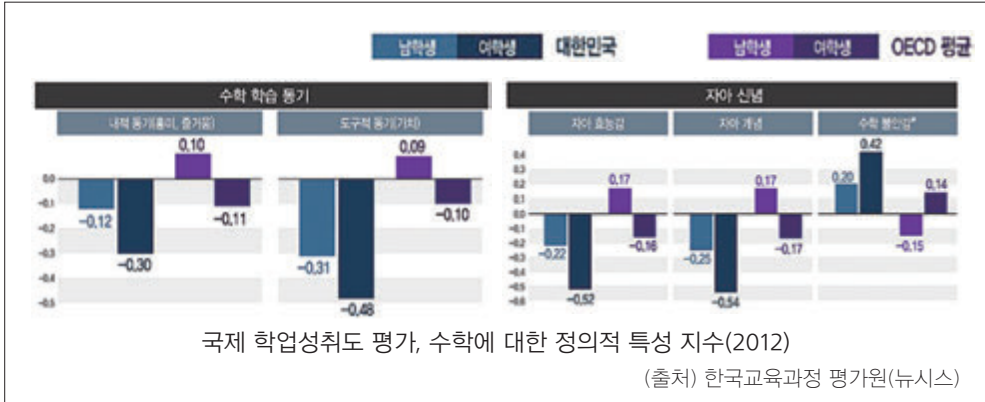
함께하는 수학 나들이



양산수학체험센터
교사 정인수

전통적으로 수학이란 주어진 공식을 외워 계산하는 과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수학에 대한 정서는 수학을 '연산'으로 인식하여, 수와 연산영역에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무미건조한 반복식 계산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 수학을 싫어하거나 혐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학에 대해 아래의 데이터를 통해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집 II | 선진형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위의 '수학 학습 동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국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 즉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OECD 평균에 많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자아 효능감, 자아개념, 수학 불안감에서도 OECD 평균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학 불안감'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학 불안감은 걱정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교육 주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아래의 그래프 결과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찬찬히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만족' 보다는 '걱정' 또는 '심각'이라는 현실에 더 가깝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한 주당 학습시간이다. 조사한 대상 국가 학생들의 학습 시간 대비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월등히 많다. 한국 학생 학습시간은 핀란드, 스웨덴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비해 2배에 가깝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감당



하기 힘든 학습 시간은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차곡차곡 쌓이고 끝내 막다른 선택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2016년 8월 2일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막다른 선택 상황은 끝내 학업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일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은 641명에 달한다. 매년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70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저버렸다. 2000년 23명에서 2009년 7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조선 pub 2016. 9. 2 기사 중).

이러한 극심한 학습 스트레스의 중심에 '수학'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거나', '포기했다'는 응답이 36%이고,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40%를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집 II | 선진형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p style="text-align: center;">빅데이터</p> <p>▶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 다양한 경우의 수 분석, 최적의 대안 도출</p> <p> [아마존·왓치] 개인 맞춤상품 추천, 데이터의 유사성 행렬 이용</p> <p> [서울시] 통계 및 최적화를 이용, 심야버스 노선 및 정류장 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핀테크</p> <p>▶ 확률 기반 리스크 분석, 수익 예측 및 상품 모델링 ▶ 온라인 금융</p> <p> [스트라이프] 139개국가 통화 간편 결제</p> <p> [블룸버그] 금융 관련 정보 수집 판매</p>
<p style="text-align: center;">딥러닝</p> <p>▶ 뉴럴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의 규칙학습, 새로운 상황에 적용 및 예측</p> <p> [페이스북] 얼굴인식 프로그램 '딥페이스'</p> <p> [마이크로소프트] 사물인식 프로그램 '아담'</p>	<p style="text-align: center;">사물인터넷</p> <p>▶ 네트워크 프로토콜, 복잡계 네트워크 모델링 ▶ 기기간 보안 암호 알고리즘</p> <p> [네스트] 와이파이 온도 조절기 'Thermostat'</p> <p> [바이탈리티] 스마트 약병 'Glow Cap'</p>

[수학이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는 사례들]

지금과 같은 수학에 대한 인식으로는 지능 정보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어렵다. 수학이라는 과목 또는 학문이 학교의 시험만으로 한정하기에는 수학이 활용되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다. 산업분야, 금융분야 등 모든 부분에 응용·활용되고 있기에 선진국에서 수학 교육을 진흥하고자 오래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오바마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평등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개별화보다 표준화를 지향하면서 우선적으로 2개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 표준을 설정했으며, 독일 연방정부는 2008년을 '수학의 해'로 선포하여 750만 유로(120억)를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교육재생회의 검토를 거쳐 '유토리 교육'을 폐기하고 수학, 과학 등 필수 과목의 수업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초등학교 1·2·5·6학년, 중학교 1·2학년의 수학 수업 확대)

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수학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수학과 전혀 다른 개념의



수학이다. 공식을 외워 문제를 풀이하는 결과적 답을 얻기 위한 수학 학습 방법은 더욱더 아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수학은 수학이 가지는 본질적인 지식의 추구로,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신장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진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함께 발전하고자 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앞서가는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수학 교육 변화는 기존 관습적인 계산 위주의 문제 풀이에서 벗어나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수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잃어버린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수학을 왜 해야 하는가?’, ‘수학은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제공하면서 새롭게 발돋움을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수학을 학생들이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학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학체험이란 수학적 게임 및 교구를 활용하여 수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중심의 학습이며, 생각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수학 스트레스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수학체험 활동은 학생 혼자 즐기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즐길 때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는 재미 없는 수학교육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먼저 즐기면서 배우는 수학 학습 방법을 경험할 때 변화에 대한 요구를 앞당길 수 있다. 수학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수학



체험은 바로 이러한 여러 교육주체들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대두된 획기적 수학교육 방법 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2016 가족과 함께 하는 수학 나들이’ 양산체험수학축전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는 멋진 행사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전유물인 수학을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어렵게만 느낀 수학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며, 무미건조한 수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수학축전으로 인해 수학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수학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수학 나들이’ 양산체험 수학축전은 새로운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큰 첫걸음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수학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아름다운 도전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jis97@hanmail.net



남산초등학교
교사 서보업

배움을 즐기는 수학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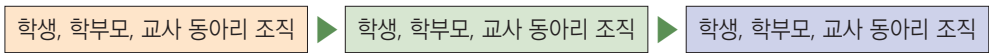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최근 '수학은 어렵다'라는 인식과 더불어 현행 수학 교육이 수학 포기자를 양산하고 있어 수학교과 학습량을 줄이고 체험중심 교육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수학 교구활용 수업, 수학체험실 운영, 수학체험주간 및 수학체험전 운영 등의 수요자 중심 수학교육활동과 체험중심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과 학습동기 및 흥미도를 향상시키고,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I. 배움을 즐기는 수학 체험교육 운영 실제

1. 배움중심 수학 학습공동체 운영

교육공동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배움중심 수학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학습 공동체는 배움중심 수학동아리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동아리는 학급별, 학년군별, 무학년제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교사 동아리는 인근 학교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수업 나눔 및 자료공유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체	운영시간	내용	비고
학생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급)교육과정 반영 · 매주 1회(수학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교구활동 수학체험 활동 프로그램 · 학생중심 수학과 프로젝트 학습 	매월1회 전 동아리 공동체험 활동실시
학부모동아리 (지역사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체험활동 시 참석 · 매월 1회 정기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교육 관련 연수 및 영역별 수학체험활동 · 자녀와 함께하는 수학체험 프로그램 활동 	
교사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회 정기협의회 · 수업 나눔 상시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교육관련 명사 초청 연수 · 지역 내 교사들과 수업 나눔 활동 및 정보 공유 	

◆ 수학체험교육 우수사례

■ 학부모 수학동아리 참여 행사

월	행사명	참여 내용
7	자녀와 함께하는 수학캠프	행사 진행 및 프로그램 운영 도우미 활동
7	남산수학체험전	행사 진행 및 부스 운영 도우미 활동
9	학생 동아리 프로젝트	학생 동아리 프로젝트 참여 및 전시회
11	남산수학체험전	행사 진행 및 부스 운영 도우미 활동

■ 수학교육 체험 활동 도우미 활용

■ 수학교육 활동 운영에 대한 의견 및 피드백 제공



2. 배움을 즐기는 수학 체험 교육 환경 조성

가. 수학체험 학습공간 조성

수학교구 활용 및 스마트 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수학적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와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장소	내용	비고
조작형 수학교실	1, 2, 3, 4학년	• 다양한 조작 활동 교구, 수학적 환경 조성	체험중심 수학교육 환경조성
일반형 수학교실	5, 6학년	• 전자칠판, 수학교구, 수학 환경	
디지털 수학교실	U-Class	• 칠판, 태블릿 PC, 수학교육 소프트웨어	

나. 수학체험 학교 환경 조성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디에서건 직·간접적으로 수학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내·외에 수학체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학생들이 즐기면서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전체를 수학놀이터로 조성하였다.

영역	구성 내용
교실 내 환경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특색에 맞는 수학적 개념을 활용한 교실환경 구성 • 해당 학년별 교과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자료 게시(수학세상 코너)
교내 환경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무게, 부피 등 수학적 단위 개념 환경 조성 • '생활 속 수학'을 주제로 알기 쉬운 수학 관련 내용 게시 • 학생활동 워크북 '꿈나래 학습장' 운영(아침활동 관련자료, 학급특색 수학체험활동 자료 등 수학 관련 활동 자료 누가 기록)
수학체험 환경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관련 행사 사진 및 활동 자료 게시 코너 마련 • 위대한 수학자 소개 및 관련 이론 자료 게시
수학독서 코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수학독서 심터 마련(수학 관련 도서 60권 구비) • 도서실 내 수학독서 코너 마련(수학 관련 도서 200권 구비)

◆ 수학체험교육 우수사례

■ 수학공감 학예행사 실시

학년	행사명	참여 내용
1-2학년군	수학 독서 감상화 그리기	• 활동 결과물 전시 및 교내 방송을 통한 발표 대회 실시
3-4학년군	수학 독서 감상문 쓰기	
5-6학년군	수학 독서 발표대회	

- 도서실 및 각 층별 수학도서 코너 신설
- 학급별로 추천 수학 관련 도서를 제공하여 학급 독서교육 실시
- 월1회 수학 관련 소식과 정보가 담긴 '수학공감' 소식지 발행
- 수학공감 소식지를 통한 월별 수학 공감퀴즈 대회 실시

3. 수학교구 체험활동을 위한 수학체험실 운영

가. 남산수학체험실 운영

남산수학체험실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구와 수학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수학이 유용하고 재미있는 교과임을 체험하게 하였다.

구분	활용 내용	순	영역	종류	수량(개)
학급체험활동	• 단원별 수학교구 활용 수업	1	수 연산 영역	20	50
수학클리닉	• 수학과 진단·처방·상담활동 실시	2	공간 지각 영역	115	300
수학 멘토링	• 체험활동 위주의 교구활용 수업	3	창의적 사고 영역	10	100
수학동아리	• 동아리 계획에 따른 교구 활용 수업	4	전략적 사고 영역	30	70
		5	학년별 교구	10	100

운영내용

영역별 교구



학생자율 이용



수학교육 명사 초청 강좌



수학동아리 활동



수업 나눔 활동

나. 교구활용 학급특색 수학체험 활동 실시(창·체 16차시 재구성)

매월 1회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수학교구를 활용한 조작활동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탐색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학급특색 수학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학년	4.27.(수) 1~2교시	5.25.(수) 1~2교시	7.13.(수) 1~2교시
1	다이스 덧셈, 뺄셈 빙고게임	맥포머스를 이용한 구조물 만들기	칠교놀이 활용 도형 만들기
2	숫자 야구 게임(세자리 수)	4D프레임을 활용한 축구공 만들기	4D프레임을 이용한 구조물 만들기
3	시간과 길이 미션해결	하노이탑을 이용한 미션해결	남산둘레길 탐방(생활 속 수학알기) - 시간과 길이 단원
4	파이메쓰를 활용한 혼합계산	펜토미노를 이용한 도형 만들기	
5	눈금이 없는 용기 이용물의 양 구하기	도미노를 활용해 종을 올려라	거대 4D프레임으로 돔 만들기
6	테셀레이션을 통한 패턴 만들기	큐브를 이용한 나만의 공식 만들기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원리 알기

◆ 수학체험교육 우수사례

■ 수학체험실 점심시간 운영표(전교어린이회 활용)

요일	담당학생	운영 내용
월	전교회장, 4학년봉사위원	- 교구관리 및 수학체험실 정리·정돈 - 교구대여 및 대장 관리 - 교구활용 설명 및 활동 도우미 역할
화	부회장(5학년), 5학년 봉사위원	
목	부회장(6학년), 5학년봉사위원	
금	6학년봉사위원	

- 전교어린이회를 통해 선도학교 운영 내용 협의
- 학생 수학동아리와 연계한 수학체험활동 도우미 활동

4. 배움중심 프로젝트 수학 수업 실시

가. 배움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 함양하고자 핵심성취기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학년	영역	단원	차시	성취기준	적용 모형	교구	수학적 사고전략
3-2	도형	3. 원	6/9	수42032.컴퍼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원을 그려서 다양한 모양을 꾸밀 수 있다.	문제 해결	하이퍼 클로이드, 컴퍼스	정보의 조직화 능력
6-1	측정	5. 원의 넓이	5/10	수63032-2.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개념 형성	어림하기App. 수 모형	직관적 통찰 능력

나. 배움을 즐기는 체험중심 교수학습 모형 개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배움 문제를 재구성하고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배움중심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전략	중점교수학습 기법	중점 지도 내용	비고
기본 전략	교구활용	• 교구활용 직접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 동기 및 흥미도 향상	월 1회 수업 나눔 활동 실시
	협동학습	• 협력적 사고 능력 및 수학 공감 능력 향상	
중점 전략	프로젝트 학습	• 협력적 과제 수행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스토리텔링	•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생활 속 수학 표현 능력 향상	
	수학토론	•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토론 능력 신장	

프로젝트(배움 문제선정)	스토리텔링	수학토론(토론기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주제 재구성 • 상호작용 전략수립 • 배움 나누기 활동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입 • 스토리텔링을 통한 흥미유발 •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습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중심 수업 진행 • 토론 기법을 통한 문제해결 및 학습정리



다. 수학과 프로젝트 수업 실시(교과 16차시 재구성)

배움중심 수학과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 교과 간 재구성을 통한 주제 융합형 수업을 설계하여, 실생활 관련 스토리텔링을 통해 동기유발을 충분히 한 후, 수학토론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하였다.



보금자리 제작하기(정육면체 단원 활용)

5.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체험활동

가. 수학교육 체험주간 운영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익히는 배움중심 수학교육을 위해 매월 4주 배움을 즐기는 체험중심 수학교육 주간을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운영하였다.

요일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월별 학년군별 프로그램	
월	수학독서 학예행사	수학공감 독서 학예 행사	3월	생활 속 수학탐구
화	수학교육 체험활동	수학교육 체험 및 견학 활동	4월	수학과 함께 하는 맘방울 한마당
수	학급특색 수학교육 활동	학급특색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	수학과 함께하는 둘레길 탐방
목	학년군별 수학체험 활동	학년군별 수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6월	프로젝트 수학캠핑
금	수학교육 동아리 활동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동아리	-----	

나. 남산 체험수학 페스티벌 운영

본교에서는 운영을 통해 수학을 딱딱하고 어려운 교과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은 즐겁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함께 배우고 익히는 행복을 나누고자 '남산체험 수학 페스티벌'을 학기별 1회 실시하였다.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즐거운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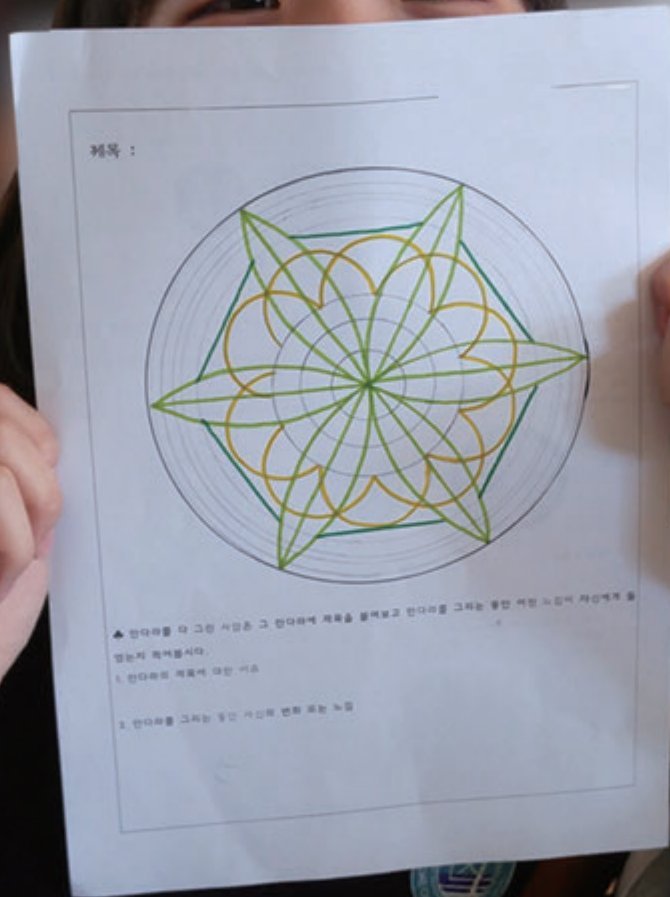
순	제1회 남산체험수학 페스티벌		제2회 남산체험수학 페스티벌	
	영역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1	공간지각	테트라포드 열쇠고리 만들기	도형	뒤틀린 입체도형
2	공각지각	조노돔 버블키트	공간지각	만화경 만들기
3	전략적 사고	하노이탑 체험활동	창의적 사고	블루투스 로봇체험
4	전략적 사고	도미노 체험활동	도형	수학등 만들기
5	창의적 사고	하이퍼 사이클로이드	연산	스도쿠
6	전략적 사고	대형 4D 프레임	창의적 사고	스트링 매쓰
7	도형	타임캡슐 열쇠고리	도형	요시모토 큐브

Ⅲ.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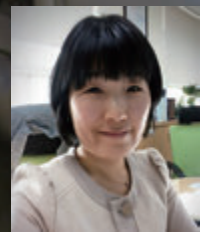
배움중심 수학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고, 배움중심 수업과 학생중심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수학적 성공경험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morepassion@hanmail.net





아이들이 채우는 교실, 교사의 희망이 되다



대청중학교
교사 문혜령

죽어가는 교실

교직 생활을 시작한지 10여 년이 흐르면서 수학적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던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혼자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딴 짓을 하고, 나 스스로 '나는 이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등에서 진땀이 나고 뒷통수가 따가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수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교사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지루하거나 어려운 수학시간이 될 뿐이고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경험들을 해 오고 있는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 인터넷만 뒤져도 다 나오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직접 해 보는 것은 다르다.

변화의 시작

수업에 변화를 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많은 준비들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잘 해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지 못하던 중 거꾸로 수업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캠프 담당 선생님께서 '교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이라고 답했지만 그 선생님은 '교사'라고 답하셨다. 그 이유는 교실에서 행복해야 하는 사람은 교사라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즐겁고 교실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학생과 교실을 타하며 수업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남을 탓하지 말자.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자.

살아나는 교실

거꾸로 수업 캠프에서 가장 와 닿았던 것이 수업 변화의 시작은 '교사의 활동을 비우고 학생들의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었다. 지난 날의 내 수업은 그렇다더라. 이렇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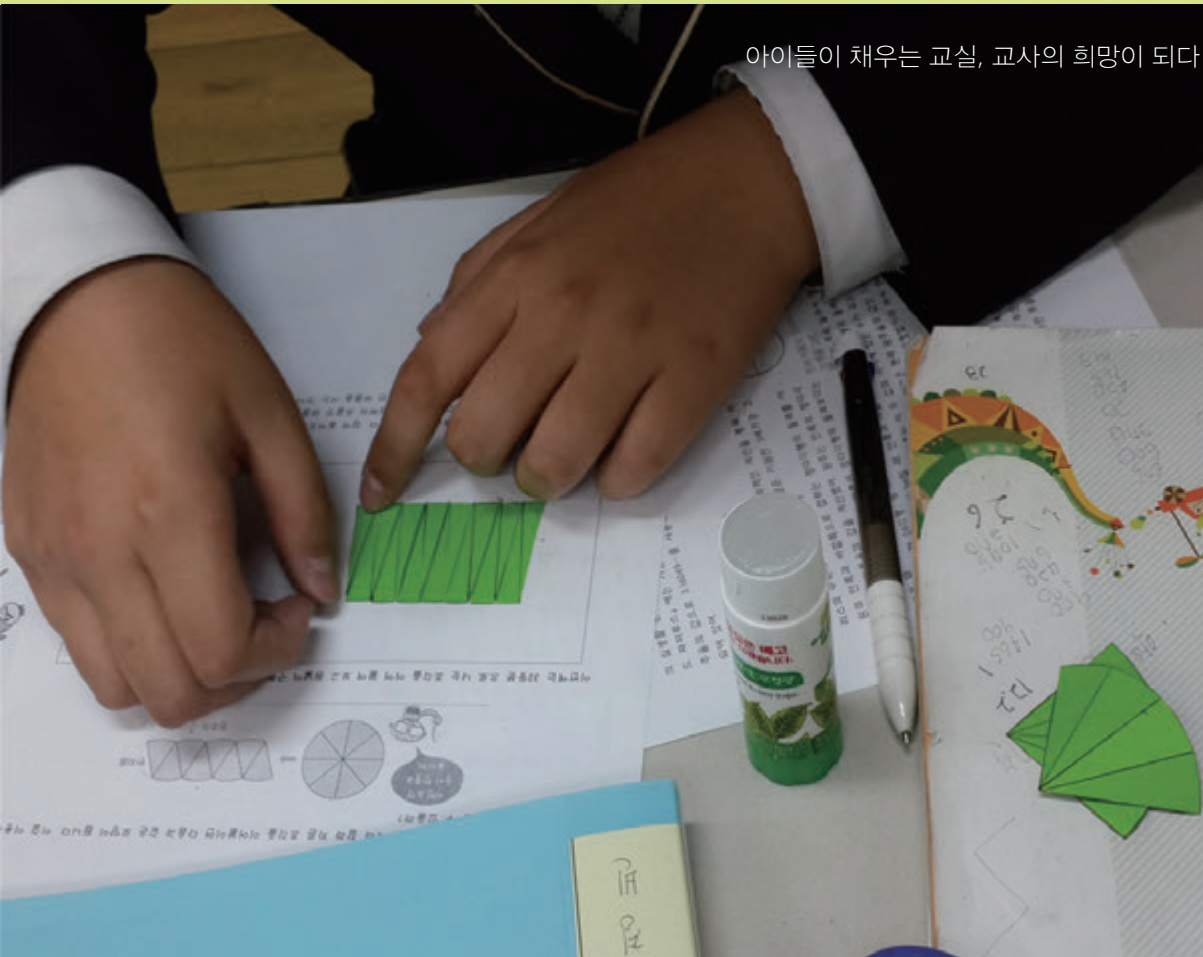


더라도 설명하거나 또는 남이 체험했던 것을 동영상, 또는 사진 자료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부분 교사 즉 나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교사의 시간을 비워내고 나니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풀어보는 시간이 늘고 그동안 생각은 있었지만 시험 진도를 핑계로 못했던 체험중심 활동들도 수업시간에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자료 부족의 문제로 거창한 체험수학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직접 실험해 보거나 만들어 보는 활동들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통계 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조사, 분석, 정리하는 통계포스터 만들기 활동
-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실험하여 삼각형의 결정조건을 찾아보는 활동
- 점, 직선, 평면과의 위치관계 단원 수업을 할 때 교실 안에서 해당되는 위치관계를



직접 찾아 사진으로 찍고 휴대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치관계를 표시
해보는 활동

-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이용한 테셀레이션 책갈피 만들기 활동
- 지름이 다른 원둘레를 직접 재어 지름과 원둘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원주율을
직접 계산하고 원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활동
- 종이접기를 통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구하는 활동
- 단원 정리 또는 학기 마무리로 수학신문 만들기 활동

이 밖에도 수업시간에 직접 해 볼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증명하거나 공식을 유도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자료들은 많다. 교사의 시간을 비워내면 시간과 진도를 타하며
못했던 활동들이 가능하다.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중간에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이면 충분하다.

아이들이 채우는 교실, 교사의 희망이 되다

아이들의 활동으로 채우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한 번 시작하니 강의식 수업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지금도 나의 설명이 길어지면 학생들의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체험, 활동 중심 수업을 하려면 준비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오히려 수업준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내가 이처럼 교재 연구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던가, 이처럼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던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 수업 준비에 힘들 때도 있지만 활동에 소극적이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자기가 완성한 작품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내 수업이 결코 특별하지 않고 이보다 더 많은 활동과 체험으로 교실을 채워나가고 계시는 선생님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감히 이렇게 나의 교실을 보여주는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도전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학생들이 교실을 채워 나갈 때 교사도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교실이 지금의 교사인 나의 희망이 된다.

violetmhr@naver.com

겨울이야기

2016·통권 207호
Education Gyeongnam

Education Gyeongnam

생생교육

드론과 함께하는 융합교육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경란

마음富者 되는父子캠프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교사 옥정애

찾아가는 학교

오늘보다 미래가 행복한 '영마이스터'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 김성원

행복한 꿈이 자라는 작은 학교

청덕초등학교 교장 박재식





드론과 함께하는 융합교육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경란

경남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는 6월18일(토)에 사이버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체험실 활용 융합교육' 1차 활동을 실시하였다. 초·중등 미디어·문학·지리과정 이 함께 융합적 만남을 통해 끼를 발산하는 교육의 장이었다. 1학기에 2회(2차: 7월9일), 2학기에 1회(3차: 9월10일)에 걸쳐 4시간씩 블록타임제로 운영되었다.

미디어 체험 융합교육은 본원 미디어센터에서 직접 PD나 앵커가 되어 방송을 기획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체험실에서 크로마키, 3D 영상체험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되었다. 특히 아이패드 앱 '아이무비'를 이용한 간단한 영상제작 체험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미디어로 표현해 보는 좋은 기회도 가졌다.

미디어와 과정별 융합 활동을 통해 즐기고 배우는 희망의 공간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질문도 하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미디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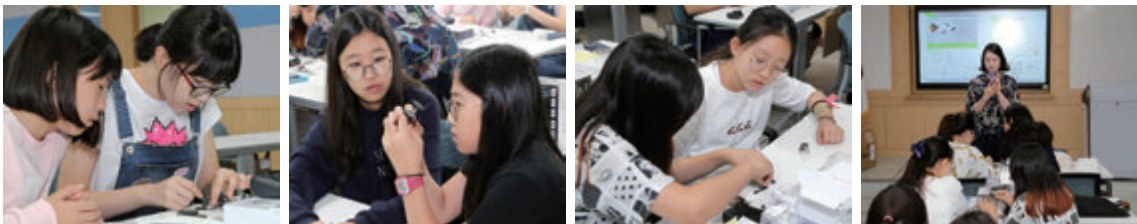
특히 드론과 함께하는 융합교육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화두인 드론(멀티콥터)의 원리와 적용 가능성을 배우고, 조종방법을 습득하여 과정별 융합 활동에 적용해 보았다. 이는 각 과정의 활동에 미디어적 효과 기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드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론 교육으로 시작하여 드론의 발달과 미래, 드론의 원리 및 구조, 무선비행장치(RC)의 원리, 드론 조종 방법 등을 배웠다. 이어 기초 비행술, 직선주행 비행, 코스 비행, 장애물 비행 등 실기 교육까지 겸하는 드론 교육을 통해 문학과 미디어가 만나는 융합 수업을 더욱 알차고 의미 있게 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중학문학반 학생은 “앵커, PD, 크로마키, 3D, 영상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 지식을 배우니 더욱 이해가 잘 되었고 지리반과 미디어반 친구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사고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미디어 체험교육과 함께한 융합교육 운영을 통해 사이버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지식·정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융합교육에서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임했던 것이 드론 학습이라 각 과정 학생들의 드론 학습 후기를 한 번 들어보자. 초등문학과과정에서 드론을 접목한 융합교육은





초등문학 1반 / 이나경

평소 신기하게 생각하던 드론을 직접 조립하고 조종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왼쪽 등 드론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날려보니 뿌듯했고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어 더욱 더 즐거웠다. 미디어 체험에 갈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

초등문학 1반 / 이효림



처음에는 드론이라고 하여 어렵게 느껴졌지만,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손쉽게 조종하고 다룰 수 있었다. 이번 교육 덕분에 드론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싹 해소되었고, 드론이라는 기계에 다가갈 수 있어서 뜻깊었으며 유익한 학습시간이 되었다.



초등문학 1반 / 하의영

친구들과 같이 드론을 직접 조립하고 조종하며 드론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날릴 때 부딪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지만 같이 날리고 또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의 모습을 찍어보는 과정도 재미있었다.

초등문학 1반 / 한 진



드론이 그냥 취미로만 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쓰임이 정말 다양했다. 이번 기회에 드론 수업을 들으면서 드론에 대하여 몰랐던 것도 알아보는 계기가 되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초등문학 1반 / 손예지

이번 기회를 통해 드론에 대해 알고 직접 조립도 해 보고, 조종까지 할 수 있어 드론과 더 친숙해 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앞으로 드론을 접할 기회가 생길 때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다.

초등문학 2반 / 이바다



카메라를 달았는데 그냥 다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 펜스를 제거하고 달았다. 카메라로 찍은 것을 나중에 보았는데, 우리들의 얼굴 등 의도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깔끔하게 잘 찍던데... 하지만 우리들에게 멀기만 한 드론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중학지리반 / 김정은

완성된 드론의 모습을 보니 성취감이 컸다.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날려보기도 했다. 조종기로 조종을 하는데 내가 만든 드론이 진짜 난다는 것조차 너무 행복하고 보람찼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는데 드론과의 만남으로 기계와 친구가 된 느낌이다.



중학지리반 / 정나윤



드론 수업을 통해 평소 말로만 듣던 드론을 직접 날려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그 수업 이후로는 드론이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귀가 솔깃해 졌다.



초등미디어반 / 김가원

큰 드론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메라 등의 기능을 조종할 수 있고, 작은 드론은 아주 작은 칩을 이용해 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초등미디어반 / 배지원



나는 평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드론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는 알 수 있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체험을 하니 기대가 되었다.



초등미디어반 / 문지훈

평소에 잘 만질 기회가 없는 큰 드론을 만져보아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생기면 좋겠다. 또, 드론 날리기 연습을 자주 해서 아주 잘 날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초등미디어반 / 양내원



아직도 드론 조종의 여운이 남을 만큼 재미있었다. 경남사이버영재교육원 덕분에 드론 조종이라는 재미 있고 신기한 체험을 해 보아서 정말 행복했다.



영재원 수업에서도 뜻깊은 시도였다. 드론 수업 후기를 정리하면서 영재원 학생들에게 드론과 함께한 융합 교육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생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은 중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중학지리반 학생들은 초등반 학생들보다 한층 더 진지하면서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10월 15일은 사이버 영재원에서 융합교육 심화학습이 있는 날이다. 이 날 초·중등 미디어반에서는 미디어 영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수업을 하였다.

특별 영상 및 사진촬영 미션을 통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편집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외용 드론을 조정하고 촬영한 후 편집을 하는 경험을 가졌다. 미디어반이라 그런지 저마다 드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다른 과정보다 더 과열된 것은 사실이었다.

드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세차레의 융합 수업과 같이 활기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도 사이버 영재교육원은 다양한 융합 교육을 시도할 것이며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kk2020@korea.kr





마음富者 되는 父子캠프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교사 옥정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형성

햇빛이 따사로운 10월,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하 산촌유학원)에서는 15일부터 16일 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1박 2일 동안 아빠와 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자캠프가 열렸다.

캠프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제고하고, 가족 간의 유대 강화 및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 관내 20가족 총 40명이 참가하였으며, 부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부자애를 키우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산촌유학원에서는 일반교육과정 37기수와 특별교육과정 4기수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특별교육과정은 어울림캠프, 다문화 가족캠프, 부자캠프, 튼튼캠프로 부자캠프는 가족 안에서 참된 나를 찾는 특별교육과정 중의 하나이다.

부자캠프는 산촌유학원의 물적·인적 자원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활용하였고 캠프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캠프는 크게 힐링 프로그램, 마음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힐링 프로그램

첫째 날 오후에는 부자간 사랑을 키우고 고달팠던 마음을 자연 친화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문화 해설사와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여창 고택 탐방 및 상림공원 탐사를 통하여 옛 선현과 교감하고 선현들의 지혜와 정신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함양의 8대 비경 중 한 곳인 상림공원 숲길을 손잡고 걸으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연리지 나무 앞에서의 사랑나무 인증 샷 찍기 활동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

밤 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참가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자가 함께 준비한 장기자랑을 발표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 마주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상호간에 편지쓰기 활동을 통하여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부자간의 사랑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영상편지는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하였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와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가족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가족애를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둘째 날 오전에는 전통공예 활동과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부자간의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전통공예는 전통놀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연물을 이용한 전통 놀잇감인 실팽이와 하늘바람개비, 나무시계 등을 만들었고, 만든 놀잇감으로 즐거운 놀이 시간도 가졌다.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활동 또한 강사를 초빙하여 떡 만들기와 오미자 화채 만들기 등을 하였다.

학생들은 아버지와 함께 떡을 만들었고, 아버지와 만든 떡을 같이 먹고 장난도 치며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며

캠핑에 참가한 아빠들은 서로 부대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고 1박 2일 동안 서로 교감하면서 커다란 힘을 얻었다며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생각을 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처음에 오기 전에는 아빠와 많이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아빠와 더 친해졌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아빠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캠핑에서 아빠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이때까지 내가 생각한 아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좋은 추억을 오래 간직하고 앞으로 아빠를 더 이해하고 사랑해야겠다.

- 아들의 소감문에서 -

캠핑에 오기 전엔 아들과 이야기도 자주 나누지 못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는데 산촌 유학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들과 둘이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아, 캠핑에 참가하여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더욱 친밀하고 애뜻한 감정이 생기는구나.”하면서 참가 내내 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받은 소중한 편지는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증표로 남길 생각이며 아빠로서 힘들고 외로울 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오늘을 추억으로 기억하며 조금씩 잊겠지만 아들과 함께한 산책, 장기자랑, 식사, 같이 잠자기 등을 떠올리며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로서의 기억을 늘 감사하며 생활하겠습니다.

- 아버지의 소감문에서 -

들어올 때 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집으로 향하는 아빠와 아들을 보면서 1박 2일의 짧은 캠핑지만 아빠와 아들이 서로 눈을 맞출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았다. 또한 마음에 한껏 사랑을 담아 좋은 추억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부자간의 정다운 모습이 보기 좋았다.

보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족’,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기 위한 산촌 유학원의 부자캠핑은 일요일 오후의 푸른 햇살 아래 마무리 되었다.

yuecha@hanmail.net



오늘보다 미래가 행복한 ‘영마이스터’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 김성원

항공·조선기계 마이스터

본교는 1960년 개교하여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 항공·조선기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 받아 2016년 현재 제7기 신입생을 모집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 형태로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직무 역량을 기르고, 선취업 후진학을 기본으로 하여 졸업 후 전원 취업과 향후 대한민국의 기술을 담당할 기술명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전국에 47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등직업교육이 취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고졸 취업의 질과 학교 지원자의 수준이 향상되는 등 직업교육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교는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숙련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전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며,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한 방과후 수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능과 소질이 탁월한 학생을 기능영재생으로 조기에 선발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능 장인을 멘토로 위촉하여 정밀 기능을 연마한 결과 각종 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실적을 거양하였다. 뿐만 아니라 90%가 넘는 취업률, 해마다 전교생의 해외 기술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리적으로는 경남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규모(전교생 300명)의 학교이지만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취업(先就業) 후진학(後進學)」의 성공적 모델 마이스터고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은 학력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취업에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 기관이나 각 지자체에서도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 시집 가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사업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후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중등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동력으로 마이스터고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이들 학교가 선도하여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2016년 47.2%로 상승하였고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34.2%를 기록했다.

특히 입학 때부터 취업을 전제로 하는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부터 계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도 취업률은 상승하고 진학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엄청난 취업절벽과 심각한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던 무조건 대학에 가고 보자는 진학 문화가 약화되면서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교에서는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실무형 맞춤형 교육 실시와 취업지원관 제도의 적극적 활용, 취업 담당선생님들이 직접 산업 현장을 누비고 기업체 인사 관계자들과 상담을 통하여 해마다 90%이상의 놀라운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양질의 취업처를 개발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아래 표는 마이스터 1기부터 마이스터 4기까지의 기업별 취업현황이다.

졸업년도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공무원	계
마이스터1기	27	10	7	43		87
마이스터2기	32	7	4	43	2	88
마이스터3기	12	13	3	60	1	89
마이스터4기	10	17	2	59	2	90
계	81	47	16	205	5	354
비율	23%	13%	5%	58%	1%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기업별 취업현황(2013~2016)

뿐만 아니라 특성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 하게 되면 최대 4년까지 입영연기 혜택이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일·학습 병행제'나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교육이 필요할 경우 언제나 대학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

2015년 기준 세계경제순위 11위(GDP기준), 세계 수출국 6위의 우리 대한민국이 급박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메달 전수식

세계경제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능력과 열정이 가득한 우리 젊은 학생들이 특성화, 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숙련된 최고의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여 산업 현장의 기둥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마이스터 인증제를 통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교운영 주체의 다양화, 현장 전문가 중심의 교원, 전면 자율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선발에 있어 입학전형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본교는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산업과와 항공산업과에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특별히 영마이스터(Young Meister) 인증 제도(5개 영역: 전공영역, 직업 기초영역, 인성영역, 외국어영역, 정보화영역)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입하여 별도의 다른 교육 없이 바로



2학년 해외기술연수(2016, 북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각 영역별 인증 자격 취득 학생에게는 마이스터 역량 개발 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본교의 특성상 일과 후의 과정 또한 학교 교육의 연장이기에 학생들이 건전한 문화 체험과 넘치는 끼와 소질의 개발 및 정규 수업 중 부족한 기술 연마를 위하여 크게 4개 영역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영어교육, 전공, 직무적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액 학교 지원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공기술능력 함양과 외국어 및 다양한 문화·예술의 특기적성능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젊은 세대의 주 무대는 국내에 제한되지 않고 세계 속에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해마다 2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연수를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기능의 꽃, 기능경기대회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 17개 시·도에서 1916명의 선수가 CNC밀링 등 49개 직종에 참가했다. 2016년 지방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이 학교와 지역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최고 기능인의 자리를 놓고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겨루는 장이다.

여기에서 입상한 선수는 국내 대표 선발 평가전을 거쳐 2017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제 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이 대회에서 입상하여야만 해당 직종의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으며 자국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전국대회에 입상하면 1200만원의 상금을 받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으며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동탑산업훈장과 6,720만원의 상금과 기능장려금을 지급받는 특전이 있다.

누구나 이처럼 화려한 길에 도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쉽게 선택받지는 못하는 기능경기대회, 끝까지 참고 버티어야 허락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몇 년씩 뼈를 깎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아무도 쉽게 가려하지 않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마다 반복되는 훈련과 엄격한 자기관리, 그리고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 부단히 숙련된 기능을 연마하여야 한다.

영광스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 자리를 위하여 본교 기능영재생들은 3년 간 해당 직종의 최고의 장인을 찾아다니며 기능을 익히고 다른 학생들이 단잠을 자며 휴식을 취할 때에도 기계 앞을 떠나지 않고 훈련한 결과 2016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CNC밀링, 용접, 냉동), 동메달 1개(가구), 우수상 1개(CNC선반)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두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출전 교육기관 중 2위로 은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두었으며 이는 51년의 기능경기대회 역사상 경남에서는 처음 있는 경사라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이 영광은 본인 혼자 노력으로 쟁취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 영광 안에는 학생들을 위해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땀을 흘리며 애태운 선생님들과 자녀의 안녕과 성취를 기원하신 부모님의 염원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입상하지 못한 전국의 많은 선수들 또한 그 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들

모두 근소한 차이로 입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해당 직종과 관련된 회사에 입사한 후 그 기량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9회의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듯이 내년에 개최되는 제 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리라 확신하고, 그 동안 기능연마를 위하여 노력한 모든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이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맺는 말

오늘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에 따른 엄청난 속도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 간의 변화가 인류의 지난 1만년의 변화와 맞먹는 규모이며 향후 변화의 속도는 예측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하고 있으며,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향후 10년 후에는 지금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패러다임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서는 단순한 가지 기술의 연마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그 답은 창의성, 인간성, 사회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 육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서는 그저 단순한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들의 가슴 속에 철학을 담고 문학적 감성과 예술의 혼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진정한 21세기의 장인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 여러분,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실패는 여러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도전을 실천하십시오. 도전하지 않은 자는 결코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kswseong@naver.com



행복한 꿈이 자라는 작은 학교

소통과 나눔을 통한 'HAPPY 청덕교육'



청덕초등학교
교장 박재식

강원도에서 발원한 물줄기 굽이굽이 흘러서 거친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곳 합천. 합천의 동쪽 끝자락에 11명의 아이들이 하루도 쉬 없이 재잘거리고 웃음꽃을 피우며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청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청덕초등학교만의 다양한 특색 교육을 통해 행복한 꿈을 실현하려는 'HAPPY 청덕교육' 활동을 소개해본다.



행복한 꿈이 자라는 작은 학교

‘한 책 읽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 나누기

저학년별 ‘한 책 읽기 연간 도서 목록’을 선정하여 읽고 학교 BAND와 홈페이지를 통한 생각 공유와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왔다. 그리고 학부모·지역민과 독서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동도서관인 ‘책나들이 도서’ 코너를 청덕면사무소와 청덕면 농협지점에 각각 설치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행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내 고장 누비기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애향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자전거를 탄 풍경’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체육시간과 수요일 6교시 동아리활동 시간을 통해 학교 운동장 및 우리 고장 곳곳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있다.

매년 10월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합천-창녕 보까지 별빛하이킹을 실시하였다. 낙동강을 따라 왕복 약 15km의 거리를 별을 벗 삼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고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예술적 감수성 키우기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학생 중심의 예술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동아리 '순간포착' 활동은 전교생이 1인 1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수요일 6교시 동아리 활동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사진 촬영 및 활용에 대한 기초 기능을 익혀 학교나 우리 고장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사진을 찍고 학년말에 사진작품 전시회와 개인별 앨범을 제작하여 1년 동안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다.

기타 동아리 '소리울림'은 4·6학년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방과후시간과 연계한 기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토르크, 고고, 셔플 등의 기타 연주의 기초 주법을 익히고 가요 및 클래식 곡을 접목한 연주를 통해 음악적 기초이론과 감수성을 기르고 있다.

또한 국악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음악에 대해 알고 전래동요와 가야금연주를 배우며 우리 음악의 멋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다.



나날수록 커지는 행복 알아가기

본교에서는 학년 말에 학생들이 받은 칭찬 포인트를 기부금액으로 바꾸어 자매결연을 맺은 청덕면 노인 회관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5월 어버이날에는 음식과 카네이션을 준비하여 방문하였고, 노인의 날에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평소에 같고 닦은 기타와 가야금 연주, 노래, 무용 공연 등을 통해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12월에는 김장을 직접 해서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청덕면 경로잔치 축하 공연 활동을 통해 어른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지역민들의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한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교내에서 전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남자원봉사 센터, 한화 테크윈, 경상대학교 인문대·공대 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동 정서 지원 프로그램 'Happy Dream'을 유치하여 운영하였다. 애교심 고취를 위한



노인회 방문



노인회 위문공연



경로잔치 축하공연



기타 동아리

벽화 그리기, 자매결연 기업 가정 자녀들의 도·농 교류활동, 대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봉사과 나눔의 의미를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하고 행복한 나눔의 꿈을 갖게 하였다.

본교는 교육공동체가 소통을 통해 함께 배우고, 꿈과 끼를 가꾸어가며, 행복한 나눔을 통한 'HAPPY 청덕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본교의 배움·세움·키움·채움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혁신하는 학교의 모습으로 신뢰받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psycw@hanmail.net



겨울이야기

2016·통권 207호
Education Gyeongnam

Education Gyeongnam

우수동아리 소개

나무와 햇살

김해대곡초등학교 교감 배숙정

아름다운 화음, 'Endless 합창단'

진해여자중학교 교사 이정현

Y.E.S 제비 탐험대

예림초등학교 교사 김정수

나눔으로 비상하라 '동그라미배움터'

거제고등학교 학생 김채현

교직실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살펴보기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안성진



나무와 햇살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개선 방안 연구



김해대곡초등학교
교감 배숙정



들어가며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가 '교육과정 워크숍'이다.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학교 구성원인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교육활동 운영에 대해 함께 성찰(반성 및 평가)하고, 다음 해의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주요 안건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및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교육과정 워크숍의 중요성 역시 최근 활발하게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의 경우 교육과정 워크숍은 학기·학년말 업무로 바쁜 학사 일정과 '효율적인 진행'등을 이유로 내세워 TF팀이나 부장단 협의회 등 소수 교원의 참여로 추진되거나 형식적인 진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전달과 지시 중심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의사소통 구조, 학교 구성원의 소극적인 자세와 무관심, 교육과정 워크숍 자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교육과정 워크숍이 단위학교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우리 연구회에서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관하는 2016.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활동을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워크숍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워크숍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선행 연구 분석

경남지역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제안에 앞서 교육과정 워크숍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교육과정 워크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초안을 설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특히 경남교육청(2015)의 『행복학교 정책 이해』, 경기도교육청(2015)의 『단위학교 워크숍 길라잡이』, 창비교육(2016)의 『다시 혁신 교육을 생각하다 1~3』이 관련 선행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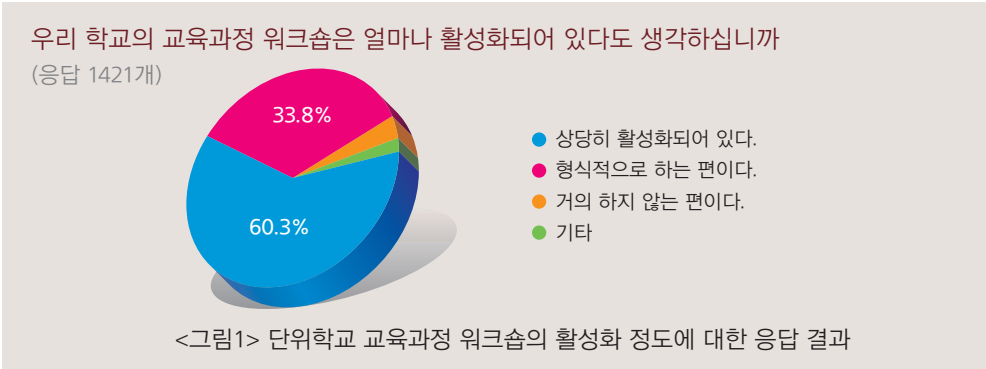
경남지역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실태 분석

경남 지역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① 학교 유형별(행복 학교, 연구시범학교, 일반학교) ② 직급별(교장, 교감, 보직교사, 일반교사), ③ 학교급별(초, 중, 고등학교), ④ 학급수별(6학급 이하, 7~12학급, 13~24학급, 25학급 이상), ⑤ 교육경력 별(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421명의 교원이 응답을 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에 탑재될 예정이다. 『2016.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합동 보고서』 중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개선 방안」을 참고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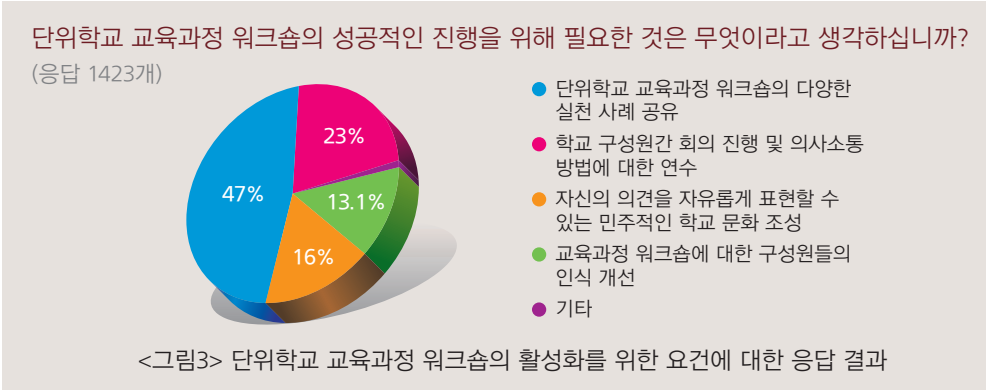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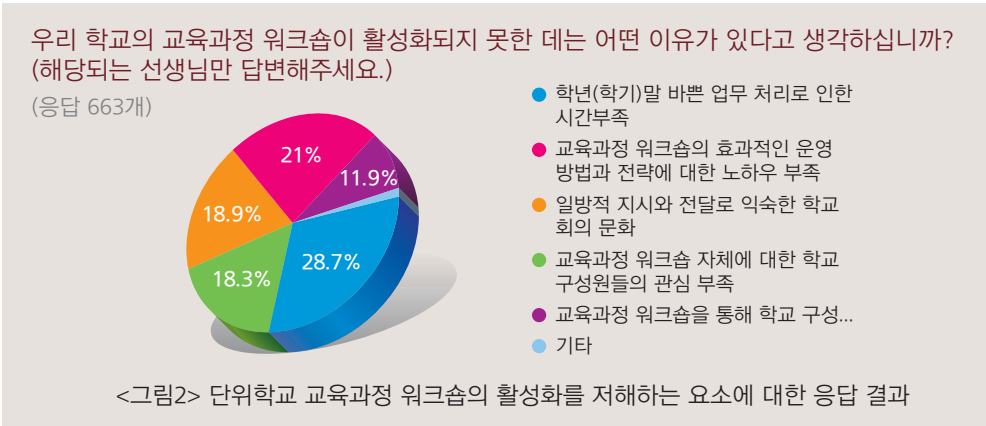
실태 분석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안내해 본다.

경남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는 73%의 학교가 1박 2일 형태의 교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박 2일 워크숍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여러 날에 걸쳐 수시로 열리는 교육과정 워크숍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직급과 경력이 낮을수록,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학교로 갈수록 교육과정 워크숍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급과 경력이 높을수록, 학교 유형별로는 행복학교와 연구시범학교, 학교규모면에서는 작은 학교일수록 교육과정 워크숍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워크숍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60%의 교원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0%의 교원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경남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학기말, 또는 학년말이 되면 으레 해왔던 것처럼 1박 2일 형태의 교육과정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방법적·내용적 측면에서 한 번쯤은 주의 깊게 성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지시와 전달로 익숙한 학교 회의 문화,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심, 비협조적인 태도가 상호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가하며, 이로 인해 단위학교 자체의 역량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학교 문화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단위학교의 워크숍 활성화 역시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 워크숍의 성공적인



진행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46%, 교육과정 워크숍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22%, 회의 진행 및 의사 소통 방법에 대한 연수가 15%,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의 다양한 실천 사례 공유가 13%로 나타났다.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이번 실태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학교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행복학교 운영과 교육감 공약사업(4-1-라 교무회·학부모회·학생회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경남교육 2016(2-2 민주적인 학교 문화), 학교혁신과-7626(2016.4.12.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추진 기본 계획) 등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학교 현장의 파급력은 다소 미약해 보였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그 정책적인 효과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파급된다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워크숍 활성화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단위학교의 자체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교직원 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학교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이를 수용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워크숍은 교사들 사이의 꾸준한 협력 문화가 중요하다. 옆 반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교사가 워크숍을 한 번 했다고 협력적으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워크숍 문화를 만들어보자

교육과정 워크숍은 꼭 1박 2일로 가야할까?

경남지역 단위학교의 실태 분석 자료나 최근의 여러 논의를 보면 교육과정 워크숍을 1박 2일로 한정하지 않고,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 필요할 때마다 여러 날에 걸쳐 수시로 여는 넓은 의미의 워크숍을 선호하는 경향을 띄기도 한다. 즉 교육과정 협의회와 교육과정 워크숍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이다. 또한 장소나 시설 역시 학교 내부에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다. 하지만 1박 2일 형태의 교육과정 워크숍이 가져

다주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을 택하면 될 노릇이다. 즉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워크숍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워크숍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관련 선행연구와 현장의 실천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워크숍 단계를 '① 한 해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반성 → ② 다음 학년도 부서별(학년별) 주요 교육활동 및 예산 사용 계획 협의 → ③ 학교 철학(학교 비전 및 교육 목표) 세우기 → ④ 학교 철학(학교 비전 및 교육 목표)이 담긴 학교(년) 교육과정의 설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과정중심평가 등 당해 학년도의 특정 안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로서 교육과정 워크숍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워크숍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 등을 분석해보면 '학교 철학 세우기'와 관련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즉, 학교 비전과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학교 철학을 세우는 워크숍과 학교 철학을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지 고민하고 계획하는 워크숍(또는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된 워크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에 학교 철학을 담아내는 일이 왜 중요할까?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의 저자 정성식(2014)은 학교 교육과정에 구성원이 함께 합의한 학교 철학이 담기지 않을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삶과 괴리된 교육과정, 구성원들의 삶과는 너무 먼 이야기를 다루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다시, 혁신 교육을 생각하다 3』의 저자 김정희(2016)는 학교 철학이 부재한 교육과정일 경우 사문화된 학교 교육목표와 인간상, 구성원 간 합의와 공유의 부재, 국가 교육과정의 절대화, 획일화된 교육 내용과 평가, 학교 교육과 교사의 철학 부재, 체험·행사 위주의 특색 활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은 학생의 삶과는 괴리된 채 그들에게서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교사들을 수동적 지식 전달자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다. 학교 철학 세우기를 위한 다음 자료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 학교 철학 세우기]

1.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진단하기

-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앞으로 우리와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현실 진단)
-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

2. 우리 아이들 진단하기

-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사회·경제·문화·정서적 상황은 어떠한가?
-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 자기표현 능력, 자기 이해 능력, 진로에 대한 방향성은 어떠한가?
-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나 지역의 아이들에 비해 뛰어나거나 바람직한 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3. 우리 학교 진단하기

- 우리 학교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교사, 지역 사회, 학부모의 특징 등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4. 학교 철학 및 교육 목표 세우기

- 시대에 대한 진단 및 아이들에 대한 파악, 우리 학교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학교는(특히 우리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학교의 철학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단어(키워드)는?
- 위에서 나열한 용어를 바탕으로 학교 철학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면?
(예: 존중과 소통으로 성장하는 스스로 공동체)

- 『다시, 혁신 교육을 생각하다 3』중에서

마무리하며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함께 성찰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학교 구성원의 삶과 밀착된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연구부장이나 몇몇 소수의 교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 과정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어떤 철학을 세울지, 그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낼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한 해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공감하는 가운데 수립된 교육과정은 해당 학교와 소속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남교육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



진해여자중학교
교사 이정현

아름다운 화음, 'Endless 합창단'



열정의 'Endless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Endless'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합창단은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영원히 평생토록 노래 부르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와 우리의 소리를 쌓아가는 즉,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 부르기 위해 시작된 자발적 동아리이다.

2012년 이정현 선생님과 함께 창단하여 노래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익혀 그 해 제48회 경남중등학생학예발표대회에 출전하여 우량상을 수상하였다. 창단 3년째인 2014년에는 도내의 최고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50회 경남중등학생학예발표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학교에서 3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에 깜짝 놀랐다. 이 외에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경남합창제, 경남학생합창제, 창원소년소녀합창단 기획공연 '우수



합창단과 함께하는 합창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여 도내의 우수한 공연장에서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가졌다. 이뿐만 아니라 본교의 교육목표인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맞추어 우리의 재능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합창단이 되기 위해 교내에서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 'Happy Hug Day'를 현악합주부와 함께 기획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쉼 음악회', 그리고 교외 활동으로는 군항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현악합주단의 공연 '작은 꽃잎음악회'에 찬조 출연하였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연주하는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를 실시하여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심성과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로 기르고 있다.

‘Endless 합창단’과 함께한 음악 여행

● 우리의 음악 여행 준비

배려 공동체	자신이 소리 듣기 및 전체 소리 듣기 선후배간의 가족 같은 관계 형성
개인의 특기 계발 및 자기표현	개인의 특기 계발 - 개별 지도 파트별 음색 통일(각 파트별 주 1회 선생님과 연습)
	악곡의 조화 - 각자의 소리를 합하여 아름다운 화음 만들기
소리의 조율·조화	각자의 소리를 자신 있게 내고 주위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자신의 소리를 맞추어 내기를 연습하기
무대 기획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 할 수 있는 연주회 참여 준비 무대에 어울리는 대형 및 의상 등 음악회 준비를 위한 기획력

● 운영 방침

3월, 한 해 동안 활동할 단원들을 오디션을 통해 뽑고 신입생 환영식을 통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합창단 분위기를 익힐 수 있도록 주 1회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주 1회는 전체 연습을 실시하였다. 방과후 수업과 토요 방과후 활동을 통해 1주일 동안 연습한 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음악을 통한 자신의 성장과정 등을 나눈다. 한 학기 동안 각 파트별로 음색이 통일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각 파트의 단원들이 모여 서로의 소리를 내고 들으며 조율한다. 1년 동안 참여할 음악회와 대회를 미리 정하여 곡목을 정하고 대회가 임박해지면 아침 자습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질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무대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 공연에 어울리는 대형과 의상 등을 학생들 스스로 준비하여 무대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회를 목적으로 준비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학생들 스스로 만든 음악을 발표하도록 한다.

● 활동의 실제

‘Endless 합창단’은 나라사랑 교육으로 통일 강연 중 연주, 창원교육청 주관 초·중학교 합창 지도 교사를 위한 연수 중 시범합창, 7월 18일 교육가족을 위한 ‘쉽 음악회’, 2016년 10월

8일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에서 대상 수상, 제52회 경남중등학생종합학예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수상 등 올해 준비한 음악 등을 다양한 장소와 성격에 맞게 연주하고 있다. 앞으로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열정 'Endless 합창단'의 희망

열정의 'Endless 합창단'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친구들과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학생, 학급에서 잘 못 어울려 친구를 사귀고 싶은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선생님과 선후배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학교 생활의 활기를 불어 넣어 준다. 나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더 좋은 소리로 노래할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소리를 통한 배려심을 기르며 다양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 부를 우리 'Endless 합창단'의 성장을 희망한다.

navywindy1@naver.com



경남중등학예발표대회 최우수

Y.E.S

Yerim Eco Swallow

제비 탐험대



예림초등학교
교사 김정수

“어느 날, 구렁이에게 잡혀먹을 뻔한 제비를 흥부가 구해주고…….”

“어? 우리 집에도 진짜 제비 있는데…….”

“뭘! 진짜?”, “우와~ 신기하다!”, “나는 본 적 없는데…….”, “나는 봤거든?”

『흥부와 놀부』에서 시작된 제비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 제비 목격담으로 시끌벅적해졌다. 그런데 나는 언제 제비를 봤더라? 하늘 위를 손살같이 날아다니던 제비의 모습이 그 옛날 흑백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지나갈 뿐.

“우리 동네에 제비가 얼마나 살고 있을까?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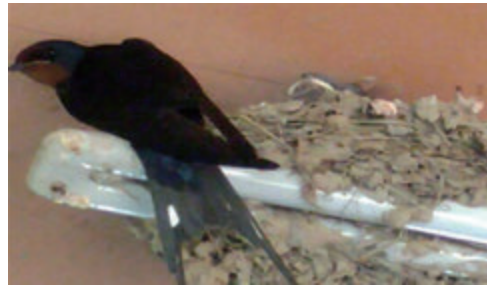
이렇게 제비 탐험대는 시작되었다.



우리 동네 제비 둥지 찾기



네이처링 앱(제비 생태 지도)



형광등 위의 제비 둥지

봄, 우리 동네 제비와 마주하다

● 마주하기 미션 1 떠날 채비를 하라

제비에 대한 막연한 기억의 한 조각과 얇은 지식 밖에 없는 왕초보 교사와 아이들이 제비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다. 다행히도 경상남도교육청과 우포생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제비 생태 탐구 프로젝트 사전 워크숍이 4월 26일에 열렸다.

제비처럼 날렵한 6학년 여자친구 2명과 함께 워크숍에 가서 제비 생태에 대한 기초 지식과 생태 탐구 기록을 위한 네이처링 앱 사용법을 배웠다. 특히 제비 관찰 거울을 가지고

진동 시장에서 제비 동지를 직접 관찰하는 실습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 마주하기 미션 2 일단 떠나라

드디어 5월 21일 토요일, 관찰거울과 스마트폰, 관찰기록장을 들고 제비를 찾아 나섰다. 동네 제비를 다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무한긍정의 'yes, yes, Y.E.S!'를 외치며 5명의 제비 탐험대는 학교를 출발하여 양림동촌 마을로 떠났다.

여기 저기 빈 동지가 많았다. 그런데 제비는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동네를 기웃거리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우리를 도둑인 줄 알고 힘차게 쾅쾅 짖어대는 누렁이와 검둥이들의 합창 소리 뿐. 빈 동지에 실망하고,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제비 탐험대!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었다. 자기 집에 제비가 있다고 자랑하던 그 친구를 찾아가 보면 되는 것이다.

● 마주하기 미션 3 목격자를 찾아라

제비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는 학교 전체에 제비 현상 수배 전단지 붙였다. 제비 동지 또는 제비를 발견한 사람은 인증샷을 찍어 보내 달라는 문구를 넣었다. 성공이었다. 이틀 만에 10개 이상의 사진 제보가 쏟아졌다. 친구들이 보내 준 응원에 힘입어 5월 23일 2차 탐사를 나섰다.

초여름, 제비를 찾아 나서다

● 제비 찾기 미션 1 제비를 빠짐없이 찾아라

우리 동네에는 거의 집집마다 제비 동지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번식 동지와 비번식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지만 농번기 농촌 마을에서 낮에 주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동지 아래쪽에 제비의 배설물이 있으면 번식 동지라고 추측하고 제비가 동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체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날아다니는 제비를 찾은 다음, 그 제비가 날아가는 방향을 따라가서 그 근처에 있는 동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비 동지와 알, 갓 부화한 새끼 제비, 먹이를 주는 제비의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처음 본

제비 알은 작고 귀여웠고, 어미 제비를 향해 눈도 뜨지 못한 새끼 제비들이 일제히 커다란 입을 짹짹 벌리는 모습은 정말 신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두 눈을 번쩍, 심장을 사정없이 쿵쿵거리게 만든 제비 둥지가 있었다. 바로 '현대 이용원 안에 있는 제비 둥지'였다. 대부분의 제비 둥지는 집 현관문 위쪽이나 처마 밑의 벽돌 근처에 있었는데, 그 곳은 이용원 실내였다. 게다가 형광등 바로 위에 둥지가 있었다.

주인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이용원 안에 날아든 제비가 형광등 위에 둥지를 지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셨다. 특히 이용원 문을 닫아야 하는 밤에도 제비가 잘 드나 들면서 새끼를 돌볼 수 있도록 위쪽의 작은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하셨다. 이런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한 해도 빠짐없이 5년 동안이나 제비들이 이곳을 찾아 왔다고 하셨다. 할아버지 뿐 아니라 이용원을 찾는 동네 할아버지들도 제비들과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세상은 초록이 되요』라는 책 제목처럼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제비를 소중하게 여기는 할아버지의 작은 배려 덕분에 제비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제비 찾기 미션 2 제비 생태 지도를 완성하라

총 2차에 걸친 탐사 결과, 경남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밀양시 상남면의 제비 개체수는 꽤 많은 편이었다. 탐사 기간 동안 우리가 발견한 약 60여개의 제비 둥지를 네이처링 앱에 등록하고 종이에 동네 지도를 그렸다. 'S' 스티커를 이용하여 30여개의 번식 둥지를 표시하여 제비 생태 지도를 완성하였다.

제비 탐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옛날에 비해 제비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점점 제비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옛날에 비해 집 구조가 많이 바뀐 탓도 있지만 제비가 둥지를 만들면 제비 배설물 때문에 집이 더러워진다고 집주인이 둥지를 떼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도 논밭이 줄어들면서 제비 먹이가 줄어들었고, 둥지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다는 것,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제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교육감님과 3차 제비 탐사

한여름, 제비 친구들과 함께 날아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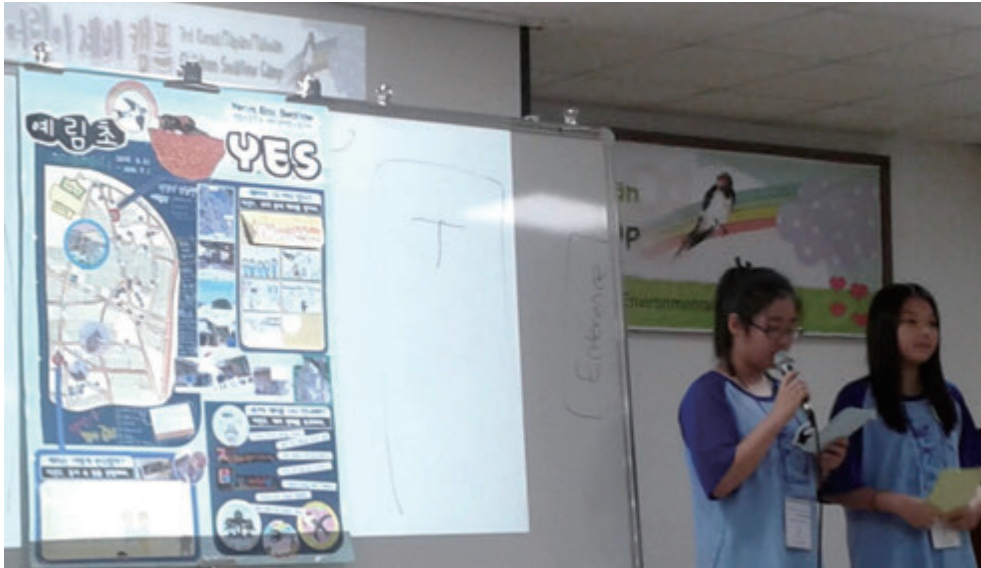
● 날아오르기 미션 1 친구들과 함께 제비 스티커를 제작하라

Y.E.S 제비 탐험대가 바빠졌다. 제비 생태 보호 스티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전교생의 약 30%가 제비 스티커 그리기에 참여하였다. 학교 본관과 후관의 연결통로에 우리 동네 제비 생태 지도와 함께 1차 평가에서 뽑힌 제비 스티커를 전시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비 스티커를 그려보고 친구들의 작품을 구경하면서 제비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그린 제비 생태 지도에 관심을 가져 주었고, 제비 생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 날아오르기 미션 2 제비 캠페인을 펼쳐라

옛날 옛적, 착한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그 제비의 자손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 6월의 어느 비 오는 날, 교육감님과 함께 2차 번식 중인 제비 동지들을 둘러보는 제3차



한일대 제비 캠프



교내 제비 스티커 공모전

제비 탐사를 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지역 기업과 방송국이 후원하는 제비 생태 보호 캠페인 동영상도 촬영하였다.

며칠 후, TV 방송을 보신 라디오 관계자가 제비 탐구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생생 라디오를 통해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다. 우리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새끼 제비들의 힘찬 울음소리, 우리들이 제비 동지를 찾아내는 소리, 제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네 어른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제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하였다.

● **날아오르기 미션 3 세상의 중심에서 제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라**

소박하게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제비들과 노닐던 우리들에게 일본, 대만의 제비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일대 제비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어떻게 제비를 조사하였는지, 다른 나라의 제비들은 우리나라의 제비와 어떻게 다른지 무척이나 궁금하였다.

우리나라는 주로 동아리 또는 소수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비 생태 탐구 활동을 하는데, 일본은 매년 5~6월이 되면 학교 또는 한 학년 전체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제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할아버지, 아버지, 형이나 누나가 조사한 내용을 이어가면서 몇 십 년 동안 가족과 이웃이 모두 제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고 그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봄을 기다리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제비 생태 탐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집집마다 둥지가 있나 없나 살피며 하늘을 올려 보느라 목도 아팠고,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간 적도 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힘든 점 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았다.

보물찾기 놀이를 하듯 제비 꿈무늬를 따라 다니면서 제비의 생태에 대한 지혜의 보물도 얻었고,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이웃 집 지붕이 제비 둥지 덕분에 정겹게 느껴졌고, 무뚝뚝한 줄로만 알고 있던 동네 할아버지는 알뜰살뜰 제비를 보살펴 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가을이다. 그렇게도 분주하게 하루에 수백 번도 넘게 집 안팎을 드나들며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나르던 엄마 아빠 제비도, 여름 내 열심히 비행연습을 하던 아기 제비들도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떠나고 빈 둥지만 남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뜻한 공기가 동네를 감싸 흐르고 새싹들이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땅 위로 머리를 쭉 내미는 봄이 오면 다시 제비가 돌아온다는 것을. 하지만 내년 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제비는 이제 더 이상 그냥 그저 그런 '제비'가 아니다. 지난 봄·여름 함께 동네를 누비던 바로 그때 그 '친구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의 친구 제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제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kamaki7412@daum.net



나눔으로 비상하라 '동그라미 배움터'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거제고등학교
학생 김채현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신라호텔에서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시상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교육부 장관상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커다란 뿌듯함과 몽글한 감동을 저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그간 꾸준히 해왔던 봉사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제 눈 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점수를 위한 봉사에서 진심을 전하는 봉사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봉사시간 때문에 포로수용소와 사랑의 집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깨끗해진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때까지 저에게 봉사는 점수를 위한 행위일 뿐 남다른 가치관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접어들기 전, 과학선생님께서 주변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과학실험캠프를 기획하셨고, 평소 아껴주셨던 제게 아이들의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전 날 밤까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줘야할지, 혹여나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는 않을지 온갖 고민에 끙끙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캠프에서 아이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고,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주고, 팀별로 게임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친해지다 보니 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정이 든 아이들과의 헤어짐이 섭섭해 버스를 배웅하고도 한참 서성거렸습니다.

캠프에서 열성적이었던 저의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셨던 선생님께서 아동센터를 소개시켜줄테니 직접 봉사를 하러 가보는 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셨고, 그렇게 처음 교육봉사를 하러 가게 된 곳이 일운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집에서 차를 두 번씩 갈아타고 장장 50분을 버스에서 보내면서도 봉사를 3년간 꾸준히 이어간 것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맑은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나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러왔다 되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더운 여름,赫赫거리며 들어오는 저를 보고 한 아이가 “언니는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 가르쳐 주러 오는 거야?”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너희한테 더 많이 받아 가.”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청소년연합교육복지기업을 설립하다

꾸준히 이어나가던 교육봉사에 찾아온 첫 위기는 고등학교 진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에게 학업은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껏 해왔던 봉사활동을 그만두기도

나눔으로 비상하라, '동그라미 배움터'



싶었습니다.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넓은 범위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찾은 방법은 온라인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봉사단체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었기에, 입시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10명에게 처음 계획을 얘기했고, 모두 흔쾌히 참여에 동의해 마침내 2014년 12월 10일 전국학생연합교육봉사단체 '동그라미배움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좋은 의도와 굳은 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기에 실천하고 싶었던 프로그램도 많았고 혜택을 주고 싶었던 아이들도 많았지만, 처음에는 함께 하겠다는 학생들도, 도움을 주겠다는 연계기관도 찾기 어려웠고, 먼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세상이 그리 호락 호락하지는 않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생이 일궈내는 전국단위봉사단체이고, 항상 처음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한다는 것을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단체의 모토와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도움의 손길을 모아 단체를 점점 키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3년차를 맞이하게 된 지금, 동그라미배움터는 '나눔으로 비상하라'라는 모토 아래 전국 15개의 지역지부, 108명의 멘토, 50개의 연계기관이 함께 약 3,000명(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그라미배움터의 교육서비스를 지원받는 아이들의 수)의 소외 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학생연합교육봉사단체로 성장하였고, 청소년 연합으로는 최초로 비영리 법인에 등록되어, 대한민국 최초 학생연합교육 복지기업이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메일과외, 인터넷강의, 전화영어 등 온라인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연 4회(3월, 6월, 9월, 11월) 모든 멘토들이 참여해 온라인 교육자료 약 400건을 제작하여 사이트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교육수혜를 받는 아이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직접 개발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학습자료를 기반으로 연계기관에 찾아가는 동그라미교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고, 소통하면서 더 나은 교육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수혜 경험이 적은 아이들을 위해 의료,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멘토들을 선발해 커리큘럼을 기획하면서 다채로운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멘토와 특색 있는 동그라미배움터만의 교육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수혜를 받는 기관과 아동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외계층 아이들의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을 함께 꿈꾸다

작년 여름, 동그라미배움터 경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제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찾아가는 동그라미교실을 진행하려고 오랜만에 찾은 일운지역아동센터에서 새봄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났고, 유독 저를 잘 따르는 모습이 예뻐 사탕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달리 이가 아파 사탕을 먹지 못한다며 입을 열어 치아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충치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아 대부분의 치아가 썩어 부식된 모습에 “아프지 않아? 병원은 가봤어?”라고 물었고, “안 아파, 병원은 못 가. 엄마가 지금은 못 간다 그랬어.”라는 대답에 ‘혹여나 충치 진행이 심각해 신경세포까지 손상이 간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롭지 못한

가정형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거제 시민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인 거사모(거제를 사랑하는 모임)에 아이를 돕고 싶고, 무료 치료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거제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한 어린이 치과병원에서 6회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주선을 해 새봄이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봄이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은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실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했고, 교육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을 함께 꿈꾸게 된 계기로 발전하였습니다.

재학 중이던 거제고등학교에 의학동아리인 The Polycle(라틴어로 의학도를 뜻한다.)을 설립해 해부, 의학토론, 논문작성 등 학술활동과 배운 의학지식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쓰기 위한 각종 봉사활동도 함께 기획해 진행하였습니다.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소외계층 결식아동을 위해 한 학기에 한 번 성금을 모아 100명의 결식 아동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직접 CPR과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동센터에 찾아가 의료교육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교내 유일의 의학동아리였기에, 학생들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메르스예방, 생명지킴이, 시력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교내 보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영어를 배워왔기에 영어와 의료를 접목시킨 TED 의료영상 무료 영-한 공식번역봉사단 AMARA에 선발되어 의학영상을 번역해 외국의 의학기술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2016년판 한국소아암백혈병협회 홍보영상을 영문판, 한글판로 제작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10월에는 아동센터에 배포할 목적으로 실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아동응급매뉴얼을 기획하고 집필해 거제아동병원에서 감수를 받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은행 DGB에서 후원을 받아 대구, 대전, 부산, 창원, 거제에 위치한 총 55곳의 아동기관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좇지 않는 소아외과 전문의, 행복을 좇는 아동종합복지재단설립자

학창시절 우연하게 시작한 봉사가 어느 순간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던 초등학교 때부터 제 꿈은 늘

외과 의사였는데, 몇 년간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꿈도 변했습니다. 여러 봉사 중에서 유독 의료봉사만큼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벽에 부딪혀보면서 스스로 '소아분야의 의료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지금은 소아외과 전문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는 의사가 아니라, WHO백신개발기구·MSF 아시아지부 등에서 활동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라는 꿈을 이루고 난 뒤에도, 동그라미배움터를 모태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종합복지재단인 '동그라미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또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복한 아이들,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이들 모두가 평등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회평등·의료평등·교육평등을 이루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그라미배움터는 운영 주축인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생이 되는 2018년에 커다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배움터가 현재 설치된 15개의 지역지부마다 2-3개 씩 공공기관(도서관·주민회관 등)에 동그라미교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마다 열릴 전국연합동그라미캠프·멘토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동그라미배움터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동그라미배움터의 모태지역이 된 경남교육청의 많은 지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교육과 의료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시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1970년대의 앵겔지수를 떠올리며 의식주 제공이 먼저지 않겠냐고 여쭙보십니다. 하지만 5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에서도 기본적인 복지제도는 거의 확립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의료·교육 등 부가 복지제도는 '하겠다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몇 년간 겪어 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하지만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제 이름 석 자를 마음 속에 새깁니다. 김채현(金彩滋). 빛날 '채'에 물 깊은 '현'을 써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세상이 깊은 물처럼 갑갑할 수 있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대규모 봉사활동을 이끌어어나가는 저를 보고 혹자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알아'처럼 상처 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이번 수상이 누군가는 제 봉사에 대한 진정성과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더욱 감사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 받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벅찬 세상에 왜 봉사를 고집 하나'라고 물으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예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작은 희망이 꾸준히 이어져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의 작은 실천이 좀 더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봉사를 건강한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줬던 도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먼 훗날 아이들이 떠올리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건강한 순환이 돌고 돌아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희망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동그라미배움터의 이름에 순환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넣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동그라미배움터가 건강한 순환을 처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곳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결코 지금 서있는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눔과 공존을 가르치며 올바르게 엄격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새로운 도전을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최고의 지원군 배병옥 선생님, 동그라미배움터를 함께 키워온 모든 운영진, 가족 분들, 부족한 저를 따라 생소한 의료지원에 동참해 준 거제고 The Polycl의 부원들, 지금껏 해 온 봉사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신 푸르덴셜과 마냥 철없던 꼬마에게 봉사의 참뜻을 일깨워 주신 보고 싶은 전유미 선생님. 이 모든 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고,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눔으로 비상하라.' 동그라미배움터의 모토를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surgeonkim01@naver.com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살펴보기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안성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재충전의 기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연수입니다. 2017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A**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둘째,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셋째,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학교 교육 개선 역량을 함양합니다.
 - 넷째,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 개발 및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컨설팅에 참여합니다.

Q 2017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 자격은 어떠한가요?

- A** 2016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사로서 동료교원평가 환산 평어 4.5 이상, 학생 만족도조사 환산 평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실경력¹⁾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6년 이상(2017.3.1.기준)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교육실경력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실제 학생을 지도한 교육경력
 ▶ 제외경력 : 휴직, 정직, 직위해제, 임시강사, 시간강사 등
 ▶ 포함경력 :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기간제 교사(1월 미만 불인정), 전임강사, 임시교사

Q 2017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선발 영역 및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선발 영역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고 그에 따른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	연구유형 및 영역 교사구분	A형		B형						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행복 학교	학교 문화	환경 교육	수업 혁신	독서 교육	회복적 생활 교육	
초등	유치원	1								20
	초등교사	4	4	2	2	2	2	2		
	특수/비교과		1							
중등	중등교사	4	5	2	3	1	2		2	20
	특수/비교과	1								
계		10	10	4	5	3	4	2	2	40

Q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의 제한 조건이 있나요?

A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 됩니다.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교육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음주운전 등)
- 교장(감), 원장(감), 상위 직급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예정 중인 자, 승진 및 전직 예정자
- 수석교사, 2017년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 초빙 또는 전보특례로 의무근무 기간에 속하는 자
- 특별연구교사 및 특별연구교사 예정 중인 자
- 타시도 교환·교류, 파견, 휴직 예정 중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6년 미만인 자(2017.3.1.기준)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국내외 특별연수자(대학원, 어학연수 등 파견 포함)
- 2017년도 국내외 어학연수(파견) 예정자(영어심화 파견 등 중복 절대 불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의해 승진 임용이 제한된 자

Q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중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자는 선발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A형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관련 연구 수행으로 A형 연수자는 교실수업개선과 학생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개별 연구 수행 후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B형은 행복학교, 학교문화, 환경교육, 수업혁신, 독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연구로 B형 연수자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는 현장교육 연구 수행 후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Q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중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중에는 다음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됩니다.

- 급여, 호봉, 교육경력은 100% 인정하고 연수비는 일부 지원 예정이다.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참여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60시간 범위 내에서 직무연수로 인정 가능하다.

Q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중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연수파견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학습연구년 수행기간 동안 연구와 관련 없는 활동은 불허한다.
- 어학연수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 해외여행은 불허한다.
-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수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파견기관 복무상황, 연수이수현황을 해당기관에 연2회 제출한다.
- 중도 포기할 경우 연구비는 전액 환수하고 해당 학교로 즉시 복귀한다.
- 연수 불이행이나 행정사항 미 준수 등으로 인해 연수가 불성실할 경우 연구비 반환은 물론 복무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특별연수기간 동안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하다.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간 중 영리활동은 일체 금지한다.

겨울이야기

2016·통권 207호
Education Gyeongnam

Education Gyeongnam

여유와 멋

희망

금서초등학교 교사 김진완

희망

명덕고등학교 교사 김현숙

정(情) 때문에

상주초등학교 교사 장현재

이 또한 지나가리

밀양고등학교 교장 강동기

뒤에서 첫 번째 수학여행

명신고등학교 교장 안명영

헌혈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미덕

창원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정민전

청렴한 공직 풍토로 가는 길

산청교육지원청 주무관 서정천

명선도 일출

김해부곡초등학교 수석교사 류철형

인생여정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안상수

눈발들 줍

공군과학고등학교 교사 양인규





희망 34×34×32cm 청자토 청자유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헛되어도 좋다.
희망이 있다.



금서초등학교
교사 김진완
jina2df@naver.com

희망

눈을 꼭 감았다 뜨면
내일이 온다.

오늘의 의미는
눈을 감을 때에야 알 수 있듯이
내일의 의미는
눈 뜨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오늘 생각하는 내일이
썩스름할지라도
내일 생각할 내일이
혹여 달콤할까 싶어

오늘의 헛헛함이
혹여나 시나브로
채워질까 싶어

아프도록 부신 눈을
다시금 꼭 감아 본다.



명덕고등학교
교사 김현숙

boaaall@naver.com

정(情) 때문에



상주초등학교
교사 장현재

십일월에 접어들자 낮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 바래지는 형형색색의 가을은 낙엽 속에 정(情)으로 물들어 흠뻑 젖는다. 일 년간 한 몸으로 지내던 나무가 잎을 떨구어 낼 때 마음은 어떨까? 낙엽 활엽수의 일 년을 보니 압축된 사람의 자화상 같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마음은 여러가지이다. 그중 희로애락은 보통 사람이 가지는 대표적인 감정인데 이 마음의 이면에는 언제나 정이 관계 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 연인 간의 사랑도 오랜 시간을 지나면 무디어 곱삭아 정으로 더 깊게 된다. 그래서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끈끈한 정 때문에 정 때문에 괴로워 혼자 울고 있어요'란 노랫말이 생겼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 시월 중순경이었다. 뜨겁게 달구었던 여름이 지나자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어른 손바닥보다 큰 거북이 두 마리 때문이었다. 여름철엔 움직임도 먹성도 좋은 녀석들이 하루가 다르게 조용해지고 먹이도 남기기가 일쑤였다. 혹시 병이 들지 않았나 걱정했지만 열대지방에 사는 녀석들이라 기온이 낮아져서 그렇다고 한다. 아마 이런 날씨 같으면 영상 십 도에서도 얼어 죽는 인도 사람과 같은 조건이란다. 그래서 실내에 두려고 하였으나 냄새도 나고 징그러워 망설여졌다.

거북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십 년 가까이 된다. 아이를 키우면 발달 과정상 작은 곤충, 물고기 등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있다. 큰 녀석을 키울 때였다. 개울에서 건져온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어항을 뛰쳐나와 거실 바닥에서 밟혀 죽어 대성통곡을 한 일도 있었다.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키우다가 어찌하지 못하여 시골 외할머니댁에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거북이의 경우는 좀 남달랐다. 직경 삼 센티미터 남짓한 새끼 거북을 사서 성장할 때까지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은 것이다.

지난 겨울이었다. 너무 자란 녀석들을 거실에 들이지 못해 현관에 두고 겨울잠 잔다고 물도 갈아주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월 어느 날 둘째 녀석이 울먹거렸다. 거북이 두 마리 중 나중에 들여온 녀석이 물을 갈아주지 않아 눈병이 걸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안약을 사다 넣기를 반복하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그 모습을 보며 무관심한 듯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키운 녀석이라 정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난 겨울은 넘겼지만 다가오는 겨울은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은 녀석들을 수족관에 다시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다행히 파충류 기르기에 관심이 있고 자기 집에 큰 수족관이 있는 학생이 분양해 간다고해서 안심되었다. 그리고 거북이를 주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묵직한 두 녀석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을 나서려는 순간 둘째 녀석이 사색이 되어 다가왔다. 비닐봉지에 그렇게 담아가면 질식해서 죽을 것이라며 둥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가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아쉬움 반 시원함 반,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으로 어둑어둑해지는 골목을 벗어나는 발걸음이 복잡한 느낌표를 찍었다.

거북이를 키우면서 붙여준 이름이 있었다. 그건 한 달 상관이지만 먼저 들어온 녀석을 갑, 나중에 들어온 것을 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태생의 순서는 이길 수 없는지 언제나 먹성과 움직임, 성장이 활발한 쪽은 갑이었고 병치레는 을이었다. 또한 햇볕 좋은 날이면 갑은 을의 등에 올라가 네 다리를 쭉 펴 등을 말리며 휴식을 취하곤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알미워 갑 노릇한다고 살짝 뒤집어 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까이한 녀석들을 보내고 난 후 하루의 시작이 거북이 물 갈아주는 일이라 무심결에 찾다가 '아, 보냈지!' 하며 '그 놈의 정'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정'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 나오는 톰 행크스와 배구공 윌슨의 관계이다. 영화의 주인공 톰 행크스는 시간을 다투어 경쟁하는 택배 회사를 운영하다 비행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한다. 그리고 그 곳으로 떠밀려온 배구공을 발견하고 윌슨이란 애칭을 부여하며 4년을 자문자답하며 지내다 뗏목을 만들어 거친 파도를 헤치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윌슨을 잃어버리자 오염을 하며 기진맥진해 있다 지나가는 배에 구조된다. 여기서 톰 행크스가 배구공에 갖는 애착이나 보낸 거북이에게 갖는 미련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 속에서 정을 만들며 때마침 부딪힘을 부드럽게 하고 소통과 도움으로 이끌어 관계를 훈훈하게 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 정은 느슨해지고 마음 바닥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기심과 탐욕은 끊임없는 사건사고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이분법으로 판단해 헌신짝처럼 버리며 마음 밭에 송곳 하나 꽃을 자리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늦가을 바람 끝이 차다. 큰 것보다는 자그마한 것, 새 것보다는 오래되고 손 때 묻은 물건을 소중히 거두는 마음이 정이다. 오늘 아침도 찬 기운을 느끼며 분양되어 간 거북이는 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몰려온다. 과연 이 마음을 정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지나가리

꽃 피고 새들이 지저귄 무렵이면
세상사 영원한 것 없다는 걸 깨닫고
외로움 밀려와 그리움 사무칠지라도
인생의 스승은 흐르는 시간일 터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

삶이 고단하고 인생사 힘들어지면
순정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열기를 뽐고
어두움은 감춰지며 밝음이 빛을 발해
찬란했던 추억들을 밝혀 줄 것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

노을이 물들고 석류가 익어 가면
진실한 삶은 알맹이를 영글게 하고
가식은 강물처럼 흘러 허상을 던져 버리며
민낯으로 노출되어 형체를 드러낼 터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

눈보라 몰아치고 앙상한 나뭇가지 흔들리면
영롱한 얼굴들은 희미한 달빛 아래 묻어 지고
이내 곧 마음의 고향에서 안식을 찾으며
희망찬 도약의 꽃길이 열릴 것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

믿음이 깨지고 서러움이 북받쳐 오면
영광은 퇴색되며 환희는 멀어져 가고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앓이 할지라도
새싹이 돌아나 파릇파릇 자랄 터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



밀양고등학교
교장 강동기
tonggey@hanmail.net

뒤에서 첫 번째 수학여행



명신고등학교
교장 안명영

교직 35년 넘어 여행을 인솔한다. 그것도 달콤한 유혹이 내재하는 수학여행이다. 자리를 잡자마자 삶은 계란이나 김밥을 요란하게 먹어야할 상황이면만 스마트폰에 빠져 조용하기만 하다. 이해한다는 듯 차창으로 고개를 돌려 연속되는 장면을 보면서 나만의 여행 속으로 젖어들었다.

문턱이 높은 대문을 넘자 2층 처마 밑에 勤政殿(근정전)으로 새긴 현판이 무겁게 보인다. 태조가 삼봉에게 뜻을 묻자 왕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밥 먹을 시간조차 아끼면서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왕이라 간섭하는 이 없어 마음대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중앙로를 따라 품계석이 나열되고 앞 열은 정일품석이다. 삼정승이 정일품에 해당되는데 일품석은 2개라 영의정은 별도 자리가 있을까? 좌·우의정은 누가 더 상급일까? 근정전 안을 둘러본다. 옥좌 뒤에 일월오봉도를 펼쳤는데 중앙의 봉우리 좌우로 2개씩이며 사이에 붉고 흰색의 둥그런 물체가 걸렸다. 왕은 남면하니 왼쪽이 동쪽이라 붉은 것은 태양이고 오른쪽은 서쪽이라 달이 되는구나. 왕이 임석하지 않는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될까? 학생들의 예상 질문에 답을 메모를 하는데 사진 찍기에 정신없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동승동 대학로에서 캠퍼스 및 사내 커플이 맺어지는 과정을 절제된 말과 한정된 공간에서 펼친 연극 <그 남자 그 여자>를 관람한다. 배우가 객석에서 불쑥 나와 학생들에게 묻고 답을 유도한다. 어색하던 분위기는 모두 주인공이 된 듯하다. 헤어지는 지경에 이르러 '그리움과 사랑은 한 걸음 차이로 서로 한발씩 다가서라'는 명대사를 남긴다.

부석사 대웅전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처는 옆모습을 허락하고 있다. 자비로운 얼굴을 대하고자 북쪽을 보고 숨차게 올라왔는데 유달리 큰 오른쪽 귀를 보여주고 있다. 부처가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중생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함일까?

무량수전 왼쪽에 바위가 들려있다. 부석이다.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와 헤어져 귀국 선에 올라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뒤엎을 듯 파도가 거세져 파선의 지경에 이르고 선묘는 용이 되어 바다를 잠재웠다. 절을 짓고 불법을 펼치는데 무뢰배가 방해를 하자 이에 바윗돌을 들어 보인다. 결국 모두가 순종한다. 선묘의 그리움은 언제까지 돌을 뜨게 할 것인가?

단양군수로 있던 퇴계는 지극정성으로 매화를 돌보는 두향에게 “너를 보면 매화향이 들리는 듯하니 聞香이라 하여라. 향기는 맡은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매화는 춤이라도 향기를 팔지 않는 법이니라.”

명종 3년(1548) 10월, 형이 충청감사로 부임하자 퇴계는 문향이 입던 치마폭에 ‘死別已吞聲 生別常惻惻’(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더라)라는 글귀를 적어주고 48세에 풍기군수로 부임하기 위하여 아흔 아홉 구비 죽령을 하루에 걸쳐 넘는다.

소수서원 뒷문을 나서 죽계를 건너고 소수박물관을 찾았다. 입구 조금 지나 강학 현장을 재현한 모형물이 있다. 학동은 두 줄로 마주보고 뒤쪽 중앙에 훈장이 정좌하고 있다. 그런데 문밖 마루 아래 흰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손바닥을 나팔처럼 구부려 깃바퀴에 대고서 소리를 모아 듣는 청년이 있다.

퇴계 선생은 자주 소수서원에서 강학을 주도하여 많은 제자를 길렀다. 마당에 홀로 서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기쁜 표정을 짓는 청년을 불러 물으니 막힘이 없어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는 대장장이라 퇴계 선생의 유일한 천민 신분의 제자 배순(裴純)이다.

스승이 죽어 쇠물로 선생의 상을 만들어 모시고 3년 상복을 입었다. 또 선조가 죽자 삭망에 소백산 높은 봉에 올라 한양을 향해 곡제사를 지낸다. 슬픈 소리가 궁성까지 들리니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고 그 봉우리를 국망봉이라 하였다. 배점 마을에 대장간 터가 남아 있고 배순을 동네 신으로 모시고 있단다.

수학여행이 마무리되는 버스 속에서 흔들리는 손잡이를 보다가 깜박 잠에 빠졌다. 보다. 제자들의 얼굴이 스친다. 유독 한 제자의 얼굴이 선명하여 이름을 부르자 지나가고 만다.

아! 나에게 배순 같은 제자가 있을까? 굽은 길 펴고 비탈길을 낮춰 이각에 죽령을 넘는 시대이건만, 스승의 길은 여전히 퇴계 선생에게 묻고 싶어라.

an094@hanmail.net



헌혈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미덕



창원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정민준

교육청에 근무한 지도 어언 10년, 학교 재직 당시 제주도에 근무하는 동기 한 명이 건강이 좋지 않아 급하게 혈액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헌혈하러 갔다. 헌혈을 지속적으로 하니 헌혈 중독으로 이르게 한 헌혈 동참의 시초이다.

내 피를 받아 그 친구가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지만 애석하게도 몇 달 후 하늘 나라로 가버렸다.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여러 장의 헌혈 증서로 그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을 추슬렀다.

헌혈은 2개월에 한 번, 1년 6회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주 헌혈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은근히 헌혈 날짜를 기다린다. 일상에서 또 다른 행복이다. 헌혈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에 음식, 술 등을 자연스럽게 자제하게 된다. 몸을 함부로 하지 않으니 그 흔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필자에게는 정상이다. 일석이조인 셈이다.

헌혈 참여시 간호사는 필자 나이의 여성은 빈혈 등의 이유로 헌혈에 동참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건강관리를 평소 잘 하시나보네요?”라고 말한다. 이 말에 더욱 뿌듯함을 느낀다.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평소 출근 전 매일 1시간 30분동안 새벽등산으로 땀을 뻘뻘. 상쾌한 하루 시작도 덤이다.

며칠 전 규모가 큰 체험행사를 마친 후 헌혈을 했는데 전혈이 아닌 성분헌혈만 할 수 있다고 했다. 평소 전혈만 해 오던 터라. 성분헌혈은 생소했다. 처음이었다. 기계장비도 복잡해 보였고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제 몸에서 빨간 피가 아니라 노란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다. 피는 빨간색인데..... 아무튼 '사람 몸이란 게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분 헌혈은 헌혈 금지 기간이 헌혈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전혈에 비해 짧은 편이라 2주 뒤에는 꼭 전혈하기 위해 '열심히 더 운동해야지' 라고 다짐한다.

올 해 초 구암고등학교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퇴근 후 직접 학교에 헌혈증도 갖다 주었다. 혈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것이므로 조그마한 나의 정성이 학생 건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교문을 걸어 나오는 내내 발걸음도 가벼웠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 의식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선진국일수록 공동체 의식은 더더욱 중요하다. 헌혈은 더불어 공동체를 실천하는 좋은 예라고 본다. 헌혈하기 위해 건강을 챙기다 보면 국가적,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나누는 미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큰 봉사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혈액이 늘 부족한 상태다. 혈액마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니 당연히 혈액 값도 비싸게 수입하게 될 것이므로 안타깝다. 한국 사람에게서는 우리 피가 좋지 않을까? 헌혈 동참자가 많으면 참 좋겠다.

나이 오십이 넘으니 배가 자꾸 나와서 고민이다. 배에 힘주고 걸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헌혈 동참을 위해 건강관리는 소홀하지 못한다. 배 나오는 것은 헌혈하고는 무관한가 보다. 헌혈날짜를 기다리다보면 하루가 더욱 경쾌하고 우울하지 않으니 직장 업무도 역동적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나의 삶의 연속선상이다.

교육가족 여러분!

건강의 초석인 헌혈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활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청렴한 공직 풍토로 가는 길



산청교육지원청
주무관 서정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란 하나 또는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라도 꺾어 손에 쥐어주는 것을 예의로 여기는 동방 예의지국이다. 이처럼 예를 중히 여기던 문화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물질 만능주의 문화가 팽배해지는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서 개인적이고 특수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결국에는 2015년 한국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대한민국 청렴도는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 사회공동체 전체를 충격에 빠지게 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예외적인 지역이 아님을 각인시켰다. 경주 지진과 유사한 충격으로 우리사회에 공동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던 부정과 부패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다. 지금은 시행초기라 모두가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실천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와 의지를 실천하고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자세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산청교육지원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청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동아리명 「청렴 그랜드슬램」은 세계 4대 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 하계 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분야에서 이룩한 그랜드슬램을 청렴 분야에서도 달성해 보자는 취지로 정했다.

OECD 최강의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청렴 그랜드슬램' 동아리는 「청렴 홍보 캠페인, 남명 조식 선생 생가 방문, 청렴 퀴즈 대회, 청렴 정착 거리 캠페인, 청렴연수, 청렴 환경정화 운동, 사회복지 시설 방문, 청렴 팝콘 나누기, 국가 혼 살리기, 내 고장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또한 계속 진행 중이다.

청렴문화 전파와 청렴 거리 조성을 위해 산청읍 중심 사거리, 농협, 산청중학교, 군청, 경찰서, 시외버스터미널 등 읍민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서 청렴 홍보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행사를 지켜본 읍민들은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산청교육지원청 일반직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청렴에 대한 홍보와 공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청렴 정책, 청렴 교육자료, 청렴상식 등의 다양한 문제를 출제한 청렴 상식 골든벨 행사도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청렴에 대한 높은 의지와 관심으로 「청렴 그랜드슬램」 동아리 활동이 산청교육지원청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백리(淸白吏)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남명 조식 유적지도 방문하였다. 조정에서 많은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거절하고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만을 위해 평생을 보낸 남명 조식 선생님의 청백리 사상을 배웠고, 영남유학의 계승 및 남명 조식 선생님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인 산천재와 덕천서원, 세심정을 따라 선생님의 혼을 느꼈다.

낙동강을 경계로 ‘좌 퇴계 우 남명’으로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학자,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재야의 비판자와의 만남은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청백리 유적지 탐방에 참석한 회원들 모두는 공직자들이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하여 모두 청렴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였다.

산청복음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른들의 말벗이 되고, 함께 풍선놀이도 함께 하고 옷 수선을 위한 바느질, 밥차 세차, 주방 식품 손질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청렴은 연령과 주어진 환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홍보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도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50분에 청렴 친절 방송을 실시하여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있다.

한방약초 축제는 산청의 대표 축제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다. 청렴 그랜드슬램 회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홍보 및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축제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청렴 팝콘, 청렴 및 청탁금지법 홍보 유인물' 등을 나누어 주면서 청렴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교육비리 없는 청정한 교육생태계조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해야 함을 알렸다.

청렴팝콘을 받아든 관람객들은 남명 조식 선생님의 혼이 숨 쉬는 이곳 산청에서 청렴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아주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며 청렴이 우리사회에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희망하였다.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 및 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동아리 회원 및 산청 지역 전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시 5만원 이하의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허용되나요? 안되나요?' 등 청탁금지법 관련 O,X 퀴즈를 통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청렴은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청렴으로 물들어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winner1119@korea.kr





명선도 일출 Canon EOS 5D Mark III 1/640s -1.00 EV F10.0 ISO 100



김해부곡초등학교
수석교사 류철형
helprew@hanmail.net

인생여정

바람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거늘
손잡고 걸었으면 더 큰 인연이 아니겠나

만남의 불씨가
어느 골짜기 청수를 타고 노래 부르며
양지바른 곳에 등지를 틀고 자라기 시작한 지 오래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갖은 역경도 이겨내며
순탄한 인생행로를 걸어오던 어느 날

이별이
예행연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찾아와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더니만
이제는 헤어 진지 오래
다시는 만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먼 훗날
우리 다시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이별이 만남 되고
약연이 인연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날을 기약해 보면서
멋진 화음으로 환상곡을 불러 보자구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안상수
san7574@korea.kr





눈발들 쉼 63.5x109cm Mixmedium on Normalpaper 2016

스스로 관조할 수 있는 조형능력 이상의 화면을 기대할 수 없다.
완성된 그림을 그리려는 집착은 오히려 촉각적 붓질의 자유를 흐트러뜨릴 뿐



공군과학고등학교
교사 양인규

yik4590@naver.com

개인전 24회
경상남도미술대전 및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교육경남」은 열린편집을 지향합니다.

「교육경남」은 현장교육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며, 「교육경남」봄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교의 특색 있는 행사 사진과 내용, 기관,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우수사례
「교육경남」에 대한 제안/소감
「교육경남」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담당자 메일 : mahg0408@korea.kr
5114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 / Tel (055)269-0712

원고 보내 주실 때 유의사항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바랍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나 제안/소감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발행 및 편집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황선준
- * 기 획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정영권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박미애
- * 편 집 위 원 : 양연규 (진해여자중학교 교장) / 김원중 (삼계초등학교 교감) / 박선정 (월촌초등학교 교사)
 조지원 (김해대곡초등학교 교사) / 홍성주 (관동초등학교 교사) / 박유창 (진해남중학교 교사)
 박지현 (대청중학교 교사) / 구형량 (창원중앙고등학교 교사) / 서화영 (김해삼문고등학교 교사)
 배중훈 (진양고등학교 교사) / 백재성 (마산가포고등학교 교사)
- * 인 쇠 : 2016. 12.
- * 발 행 : 2016. 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관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http://www.gerii.go.kr>

